

2020년 제22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 시장과 상인



# 프로그램 일정

주제 : 시장과 상인

일시 : 2020.05.22.~07.10. 매주 금요일 14:00

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날 짜	강 의 내 용	강 사
5. 22	시장이 시작되다-조선시대 시장과 그 풍경	박은숙(고려대학교)
5. 29	개항과 시장의 변화	전우용(한국학중앙연구원)
6. 05	시장규칙과 공설시장의 등장	진주완(독립기념관)
6. 12	답사 : 안성맞춤박물관, 안성시장	
6. 19	전국 오일장을 누빈 보부상	이창식(세명대학교)
6. 26	경강상인, 조선의 물자를 거머쥐다	고동환(KAIST)
7. 03	상권수호에 앞장선 인천객주	이영호(인하대학교)
7. 10	개성상인의 성공비결, 다양한 상업제도의 발달	양정필(제주대학교)

-일정과 강사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 차

강 의 내 용	페이지
시장이 시작되다 - 조선시대 시장과 그 풍경	3
개항과 시장의 변화	13
시장규칙과 공설시장의 등장	23
전국 오일장을 누빈 보부상	55
경강상인, 조선의 물자를 거머쥐다	99
상권수호에 앞장선 인천객주	115
개성상인의 성공비결, 다양한 상업제도의 발달	125



# 시장이 시작되다

## - 조선시대 시장과 그 풍경

박은숙(고려대학교)



# 시장이 시작되다

## -조선시대 시장과 그 풍경

박은숙(고려대학교)

인간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고파는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경제적 통로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인간의 삶과 동행해왔다. 조선시대 시장을 들여다보면, 그때 그곳 사람들의 경제생활과 문화, 풍경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늘날 시장 또한 상품을 통해 지구촌 전체가 거미줄처럼 얽혀 움직이고 있다.

### 1. 조선시대 시장과 그 변천사

시장은 인류역사만큼이나 오랜 옛날부터 존재해 왔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온달이 “떨어진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 저자거리를 왕래” 하였고, 백제의 가야 정읍사에는 저자를 떠돌아다니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며, 신라의 시장에서는 반역자를 처형한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도 수도인 개경에 시전(市廛)이 설치되어 도성민의 수요품을 판매하였고 외국상인들도 수시로 드나들었다.

조선시대 서울에는 관설시장인 시전과 사설시장인 배오개[梨峴]·칠패(七牌)장이 들어서 성황을 이루었으며, 지방에도 수많은 장시가 들어서 상거래가 활발해졌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 한양 천도를 단행하고 본격적으로 수도 건설을 진행하였다. 예로부터 도성건설에 적용되어 왔던 ‘좌묘우사 전조후시(左廟右社 前朝後市 ; 좌 종묘, 우 사직, 전 조정, 후 시장)’ 원칙 아래 도성 건설을 추진했다. 다만 시장은 뒤에 북악산이 자리하고 있어 뒤쪽에 자리할 수 없었다. 이에 자연발생적으로 운종가(雲從街), 오늘날 종로사거리 일대에 시장이 들어서 혼잡을 이루었다.

▶ 시장과 상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건설된 것은 1412년(태종 12)부터 141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태종 때 건설된 시전 행랑

순차	공사 기간	공사 구간	규모	기타
제1차	1412. 2~1412. 4	해정교~창덕궁 동구	800여칸	
제2차	1412. ?~1412. 5	창덕궁 돈화문 ~정선방 동구	472칸	돈화문 완성
제3차	1412. 7~1413. 5	경복궁 남쪽~종묘 앞	881칸	1차 공사구간 중복, 종루 이전
제4차	1414. 7~1414. 9	종루~남대문 종묘 앞~동대문	칸수 미상이나 합 674칸 추정	종루~남대문은 보수·신축 병행
총계			2,027칸(세종실록지리지)	

태종 때 건설된 시전행랑은 2,027칸이었으며, 시전을 비롯하여 관청이나 군영(軍營) 등으로도 사용되었다. 시전 외에도 여기저기에 여항소시(閭巷小市)라는 작은 장들이 있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 시장은 획기적 변화를 겪었다. 양란의 피해를 극복하면서 점차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지방의 장 시도 전국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었다.

서울의 시전은 배오개·칠패장의 등장과 급성장으로 상권의 위협을 받았다. 이에 시전상인들은 난전(亂廛)을 규제할 수 있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이라는 특권을 챙기고 대신에 높은 국역(國役)을 부담하였다. 당시 국역은 궁궐과 관청의 수요품 조달, 사신의 공물(貢物) 마련 등이었다. 시전의 금난전권은 1791년(정조 15) 신해통공(辛亥通公)으로 육의전(六矣廛) 이외에는 모두 폐지되었다. 육의전은 선전(線廛)·면포전(綿布廛)·면주전(綿紬廛)·저포전(苧布廛)·지전(紙廛)·어물전(魚物廛)이나, 고착된 것은 아니었다.

칠패(七牌)장은 17세기 후반 남대문 밖 칠패(어영청 조소) 근방에 형성된 시장으

로, 종로시전·이현과 함께 서울의 3대 시장으로 평가되었다. 칠패장은 어물전이 유명했으며, 한양가에도 “칠패의 생선전에 / 각색생선 다 있구나”라는 내용이 등장하며, “동부채 칠패어(東部菜七牌魚)”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돌았다. 칠패 상인들은 금난전권의 규제를 피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 지방에 내려가 어물 등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어물을 중간에 매점하여 도산매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근래에 이르러 무리한 무리들이 성군작당하여 남문 밖 칠패 복처(伏處)에 난전(亂廛)을 장황하게 설치하고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는데, 사람과 말이 숲을 이루어 무수히 난매(亂賣)함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그 동당(同黨)을 동교(東郊)의 누원(樓院) 주막과 남교(南郊) 동작나루에 파견하여 남북에서 서울로 향하는 어상(魚商)들을 유인하여 짐을 부리도록 하고, 천·백 짐[駄]을 막론하고 모두 칠패에 사들여 성안의 중도아(中徒兒)들을 불러모아 날마다 난전을 벌이니...(《각전기사(各廛記事)》 영조 22년(1746)).

칠패 상인들은 매년 가을과 겨울에 직접 원산에 들어가 북어·대구 등의 어물을 대량 구입하여 두고, 물량을 조절·공급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조종하기도 하였다. 또한 누원·동작진·송파 등의 외곽 시장을 중간 집하장으로 활용하여 칠패와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갖추어 갔다. 결국 칠패의 사상도고들은 자본과 조직을 바탕으로 물품의 구입과 확보, 영업 방식의 측면에서 시전상인들을 압도하여 서울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현(梨峴)은 동대문 근처, 곧 배오개[梨峴]을 기점으로 남쪽 일대에 형성된 시장으로, 오늘날 종로구 인의동 남쪽으로부터 종로4가·예지동 일대에 걸쳐 있었다. 이현은 채소와 해산물을 도산매하는 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동부채 칠패어(東部菜七牌魚)”라는 말에도 드러나듯이 채소의 집산·판매로 유명하였다. 그것은 이현에서 가까운 동대문 밖 왕십리평과 전관평 일대에서 생산되는 채소가 바로 유입되어 매매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동대문 밖 왕십리 전관평의 무, 동대문 내 혼련원 배추”는 서울에서 제일로 졌다. 배오개상인들 또한 시전의 통제를 피해 생산지에 직접 내려가거나 중간 거점지역에서 상품을 대량 매입하여 최대의 이윤을

추구했다.

외곽지역의 송파장시와 누원점·송우점 등은 한강 상류와 동북지방의 상품이 서울로 들어오는 유통거점으로서, 서울의 사상도고들과 결탁하여 도성 상권을 흔들었던 시장으로 떠올랐다. 이제 서울을 둘러싼 시장권역은 도성 안팎과 경강은 물론 경기도 외곽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들 시장은 상호간에 연계관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경강(京江)에서도 상품거래가 활발했는데, 용산과 서강은 세곡의 집산지로서 미곡의 거래가 많았고, 마포는 젓갈·소금·생선·건어물 등 해산물의 집산지로 유명했으며, 독섬과 두모포 일대는 목재와 시탄이 주로 집산되었다. 이에 ‘목덜미가 까맣게 탄 사람을 왕십리 미나리 장수라 하였고, 얼굴이 까맣게 탄 사람을 마포 새우젓 장수’라는 말이 나왔다.

그 외에 약국(藥局)·현방(懸房)·책방·그림가게 등의 점포상업도 도심 곳곳에서 성행하였다. 또한 18세기 후반에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음식점과 주점·색주가 등의 각종 서비스업도 성장하였으며, 겨울에 얼음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판매하는 장빙업(藏氷業)도 발달하고 있었다.

지방에는 전국적으로 장시(場市)가 형성되어 급성장했으며, 18세기 말경에는 1천여 개가 넘는 장시들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송파장·강경장·전주읍내장·마산포장 등이 큰 장시로서 명성을 떨쳤다. 이들 장시는 대부분 5일장이었지만,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대도시에는 상설장시가 열리기도 했다.

## 2. 시장의 상품과 이모저모

시장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시장의 상품은 각 시대와 나라의 풍습·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며, 문명 교류의 상징이기도 하다. 상품 중에는 쌀·채소·과일과 같이 지속적으로 중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있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상품도 있다.

삼국고려시대 시장에는 곡물·옷감 등의 의식주 관련 상품과 문방구·장식품·약재·동물 가죽 등이 거래되었으며, 멀리 서역에서 건너온 로만글라스와 같은 상품들도 있었다.

조선시대 시장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들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지에서 수입



된 상품들도 판매되었다. 서울은 부유한 양반세도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곳으로, 소·말·돼지·닭·염소·양·오리·꿩·토끼·노루·사슴고기 등의 육류 거래가 많았다. 그 중 쇠고기와 말고기는 자연사한 것 이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규제하였으나, 관례적으로 묵인되어 왔다. 그러나 예종 때 유자광(柳子光)이 남이(南怡)장군을 역모로 모함할 때 “쇠고기 수십 근이 부엌에 있었다.”는 점을 불법행위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조선후기에는 푸줏간인 현방(懸房)을 두어 소의 도살과 쇠고기 판매를 허용하였다.

먹을거리 관련 상품들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후기에 고추와 감자·고구마·호박 등이 유입되어 새로운 음식문화를 창출하고 중요한 구황식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식생활에 혁명을 초래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추와 김치가 만나 붉은색 김치가 탄생하였고 고추장의 출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당시 고추는 매운 맛 때문에 고초(苦草)라고 하였으며, 남만초(南蠻草)·왜초(倭草) 등으로도 불려졌다.

담배 또한 임진왜란 이후 들어온 것으로, 남초(南草)·남령초(南靈草)·서초(西草)·연초(煙草) 등으로 불려졌다. ‘남령초’라는 명칭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도입 초기 담배는 약초로서 주목받았으며, 담뱃잎으로 코를 막으면 콧병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담배는 급속도로 퍼져나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조선인들이 즐기는 기호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시전에도 연초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잎담배·살담배 등 각종 담배를 판매하였다.

여인들의 머리에 얹는 다리 또한 주목되는 상품이다. 다리는 여인들의 머리를 장식하는 가발과 같은 것으로 체계(髻髻)·월내(月乃)·월자(月子)라고도 하였다. 다리가 점차 사회적 신분과 집안의 위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떠오르면서 그 모양과 크기가 사치스러워졌다. 이에 따라 “다리 한 꼭지의 값이 간혹 수백금(數百金)”에 달하여 “혼례 때 다리를 사기 위해 심지어 가산을 탕진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고, 때로는 “며느리를 보아도 다리를 마련하지 못하여 시집온 지 6·7년이 넘도록 시부모 뵈는 예를 행하지 못하여” 인륜을 저버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여인들은 그 무게에 짓눌려 고통을 받았다.

요즘 어느 한 부잣집 며느리가 나이 13세에 다리를 얼마나 높고 무겁게 하였던

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일어서다가 다리에 눌러서 목뼈가 부러졌다. 사치가 능히 사람을 죽였으니, 아! 슬프도다 (이덕무, 《靑莊館全書》)

그 외에 중국·일본·아라비아 등지에서 들어온 당포(唐布)·왜포(倭布)·회회포(回回布, 아라비아산) 등이 판매되었고, 용안과 여지라는 열대과일도 판매되었다.

시장은 수많은 사람과 돈이 오가고 상품이 거래되는 곳으로, 무수한 이야기와 사건·사고들이 넘쳐난다.

예로부터 시장에서는 국가권력에 대항한 ‘반역자’와 간통·살인범 등이 처형되어 왔다. 신라 진평왕 때는 반역한 “칠숙을 붙잡아 동시(東市)에서 참수하고 아울러 9족을 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성삼문·이개 등의 사육신도 죽은 다음 시장에 효수되었고, 남이(南怡)장군과 그 모친도 시장에서 거열형이라는 참혹한 형벌에 처해졌으며,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도 시장거리에서 처형되었다.

여리꾼 또한 주목되는 존재다. 점 앞에 서 있다가 손님을 끌어들여 물건을 사게 하고 주인에게 돈을 받는 열립군(列立軍), 곧 여리꾼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리꾼은 손님에게 무슨 물건을 사러왔는가를 묻고, 해당하는 점포에 이끌고 가서 흥정을 붙여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였다. 이 때 여리꾼은 시전 상인이 작성한 값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주고 그 차액을 챙겼는데, 그 차액을 바로 여리(餘利)라 하였다. 여리꾼은 자기 몫을 많이 챙기려면 주인이 작성한 가격을 미리 알아내어 그 보다 비싼 값에 팔아야 했다. 이에 손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를 사용하여 가격을 파악했는데, 이 암호를 ‘변어’라고 하였다. 예컨대 1은 천불대(天不大), 2는 인불인(仁不人) 등과 같은 방식이다.

가뭇이 들면 시장을 옮기는 풍습 또한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가뭇이 들면 시장을 옮기는 것[移市]은 화려한 시장을 닫고 골목 등지로 옮겨 최소한의 생활필수품만 거래함으로써 근신을 실천하고 하늘을 감동시켜 비를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속담에 “장사 끝에 살인난다”는 말이 있듯이 시장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시장에서 아녀자들이 싸움을 하다가 한 여인이 죽는 사건이 있었고, 땔나무를 싣고 온 소와 말을 빼앗기 위해 땔나무장수를 살해한 일도 종종 일어났다. 그 밖에도 시장에서는 각종 사기와 절도·강도사건 등이 끊임없이 일

어났다. 시장은 고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 격구놀이·산대놀이·광대놀이 등을 펼쳐 왔으며, 송파산대놀이도 송파장에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능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같다. 하지만 거래되는 상품과 오가는 사람들, 시장의 풍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성-발전-소멸의 궤도를 그리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역사와 풍경 속에는 그 때 그곳 사람들의 경제적 생활과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은 시대와 생활문화를 비추는 거울이자, 문명 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만길, 1973,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동환, 1998,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박평식, 1999, 《조선전기 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이태진 외, 2000, 《서울상업사》, 태학사  
변광석, 2001,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 혜안  
박은숙, 2007, 《서울의 시장》,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박은숙, 2008, 《시장의 역사》, 역사비평사



# 개항과 시장의 변화

전우용(한국학중앙연구원)



# 개항과 시장의 변화

전우용(한국학중앙연구원)

## 1. 개항 이후의 상업 변동

1876년의 개항은 조선의 사회 경제구조 전반을 급속히 변화시켰다. 조일수호조규를 비롯해 서구 열강과 맺은 여러 조약이 통상조약(通商條約)이었던 것은, 바로 모든 변화의 근본이자 중심에 상품과 상거래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새로운 거대 시장(市場)으로 개항장이 출현했다. 개항장은 조선 상인과 외국 상인이 함께 이용하는 호시장(互市場)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도 조선 물화와 외국 물화가 섞여 있었으며, 그 상품들의 이동 경로도 범(汎)지구적이었다. 예컨대 영국산 면포는 중국 상해나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부산과 인천 등지로 들어온 뒤 다시 서울로 향했으며, 조선 전역에서 생산된 쌀과 콩, 사금, 쇠가죽 등은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들에게 수집된 뒤 다시 일본의 시모노세키, 하카다, 고베 등지를 거쳐 일본 주요 도시나 유럽, 미국 등지로 향했다.

개항장 설치에 따른 상품 교환 경로의 변화는 서울의 상업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개항 이전 서울은 국내 상업의 정점(頂點)에 있으면서 전국의 상품을 집적하고 다시 분배하는 구실을 했는데, 개항장은 이런 상품의 유통 경로를 굴절시켰다. 지방 장사에서 수집된 상품의 상당량은 서울로 들어오지 않고 개항장의 외국 상인 수중에 집적되었다가 곧바로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또 개항장은 외국 화물을 수입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분배하는 구실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단일 중심으로 뻗어 있던 국내의 유통망은 부산, 원산, 인천 등의 개항장을 뿌리로 삼아 나무 가지 모양으로 뻗는 구조로 변해갔다.<sup>1)</sup> 더불어 농촌 지역의 잉여 생산품

1) 개항기 시장 구조의 변동에 대해서는 이현창, 2012 『한국경제통사』 해남 참조.

을 흡수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는 구실을 했던 전통 도시들은 쇠퇴하고, 대신 개항장 도시들이 급팽창했다.



〈그림 1〉 1900년경 서울의 장작장수. 땔감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빈터는 거의 시탄시장처럼 사용되었다. 까들로 로제티 저, [꼬레아 꼬레아니]

국제 교역을 위해 설치된 개항장이 국내 유통망의 중심지로 변해가자 상인들도 상당수가 개항장으로 이동했다. 그 이전부터 동래(東萊) 왜관(倭館) 주변에서 일본인과 거래했던 상인들은 물론, 의주에서 대청(對淸) 무역에 종사했던 만상(灣商)과 경강상인 일부조차 개항장 객주가 되었다. 객주들에게 예속되어 있던 각지 객상(客商)들도 이들 객주를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개항장 무역이 시작됨에 따라 서울로 반입되는 국내산 상품의 양은 줄고, 외국 물품의 양은 크게 늘었다. 기계제 대공장에서 생산된 유럽산 면포, 석유, 성냥 등 그때까지 조선인들이 접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유입되어 시민의 생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켰지만, 쌀이나 콩 등 국내산 농산물의 서울 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외국산 제품은 처음 개항장 객주를 거쳐 서울에 반입되었으나, 거듭된 불평등조약의 개악(改惡)으로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 밖으로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이윽고 외국 상인들이 상품의 반입과 판매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조선 상인들은 외국산 제품을 취급하기 어려웠던 데다가 국내산 상품의 서울 반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심한 곤경에 처했다. 이에 서울 종로의 시전가(市廛街)는 물론, 경강 포구(浦口)들의 상세(商勢)는 크게 위축되었다.

외국 상인들의 서울 침투로 인해 시전(市廛) 상인 전체가 위기에 처했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에 일정한 역(役)을 부담하는 대가로 금난전권을 확보했던 육의전의 피해가 특히 컸다. 사실 청일(淸日) 양국 상인이 서울에서 점포를 낸 것은 육의전 상인들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난전행위였다. 더구나 외국 상인들이 취급하는 물종의 대다수는 바로 육의전이 독점하던 물건들이었다. 중국산 비단을 팔던 선전(緞廛), 면포와 면사를 팔던 백목전(白木廛), 면주전(綿紬廛) 등이 모두 외국 상인들이 직수입한 동종의 상품들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sup>2)</sup> 또 육의전 상인들이 국가에 대해 각종 부담을 지고 있었던 데 반해 청일 상인은 일단 관세를 문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부담을 지지 않았다. 서울 개시 직후에는 육의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에게 상품을 구입하는 조선인의 뒤를 쫓아가 강제로 ‘분세’를 징수하기도 했지만,<sup>3)</sup> 이 역시 청일 양국의 항의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890년 서울 상인들의 철시투쟁은 바로 정부가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을 방지하는 데에 대한 저항이었으며,<sup>4)</sup> 이후로도 이런 저항은 여러 방식으로 되풀이되었으나, 종로 상권의 쇠락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경강 객주들의 처지도 시전 상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이 중앙 관아나 궁방(宮房)에 분세(分稅)를 납부하는 대가로 얻은 독점권은 개시장(開市場)에서 활동하는 외국 상인은 물론, 그들과 거래하는 조선 상인에게도 미칠 수 없었다. 더구나 정부는 1889년 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마포장정(麻浦章程)」을 제정, 인천 해관을 거쳐 마포, 용산, 양화진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내국 선박이라도 세금을 걷지 않도록 했다.<sup>5)</sup> 이로써 외국산 물품은 경강 객주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戊子 9월 18일 白木廛 元必成等 所志」 『各處所志謄錄』, 49-50쪽 참조.

3) 京城府, 1934 『경성부사』 2, 615-6쪽.

4) 金正起, 1989 「1890년 서울상인의 撤市同盟罷業과 示威투쟁」 『韓國史研究』 67 참조.

개항장 무역이 시작되어 경강으로 반입되는 국내산 화물의 총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외국산 물품조차 경강 객주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으니, 이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상인의 곤경이 곧 시장의 쇠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태반이 바로 상인층이었기에 이들의 곤경은 서울 시민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더구나 그렇게 축소된 소비시장마저 외국 상인들과 나누어야 했다.

## 2. 개항장 외국인 상권의 형성

1882년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서울에 군대를 파견한 청(淸)은, 난을 진압한 이후에도 군대를 그대로 주둔시키면서 조선을 근대적 속방(屬邦)으로 개편하기 위한 공작을 추진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상민수륙무역장정(商民水陸貿易章程)’ 체결이었다. 이보다 앞서 청은 조선에서 일본의 세력이 일방적으로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알선했는데, 청군이 상시(常時) 주둔하게 되자 아예 조선에서 청(淸)의 특권적 지위를 조약의 형식을 빌려 공인(公認)받으려 했다. 이 장정에 따라 청국 상인들은 서울과 양화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점포를 열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장정은 또 청상(淸商)이 누리는 권리는 청과 조선의 특수 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나라 상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열강은 불평등조약에 명기된 ‘최혜국(最惠國) 조관’을 근거로 청상에게만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1885년 영국은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청상에게만 허용되었던 권리를 확보했고, 동시에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도 이 권리가 부여되었다. 이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일본 상인들이었다.

1882년 청나라 상인들에게만 개방되었던 서울은 1885년부터 다른 개항장들과 같은 ‘개시장(開市場)’이자 ‘호시장(互市場)’이 되었다. 상민수륙무역장정에 따르면, 외국 상인들의 서울 거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청일 양국 상인이 아무 곳에서나 살게 할 경우 조선인들과 마찰, 충돌을 빚을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조선 상인들이 외국 상인을 몰래 공격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났다. 이에 조선 정부는 청일 양국 대표와 회담하여 청국인과 일본인의 거류 지역을 제한하는 데에 합의

5) 『暫定船隻前往麻布章程』(奎 23488) 高宗 26년.

했다. 청국인의 거류지는 개천(開川) 광교에서 장교 구간의 남쪽, 구리개 좌우로 지정되었고, 일본인의 거류지는 그 남쪽, 진고개와 남산 기슭으로 정해졌다.<sup>6)</sup> 각각 현재의 을지로와 충무로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정부가 청일 양국인의 거류지를 개천 이남으로 한정된 것은, 가급적 외국 상인들을 궁궐과 관아가 밀집해 있는 개천 이북으로 들이지 않으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양인들에게는 정동 일대가 배정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직후 부임한 미국 공사 푸트가 우연히 자리 잡은 곳을 아예 서양인 거류지로 추인한 것인데, 마침 정동도 경복궁을 기준으로 보면 개천 바깥쪽에 있었다.

1880년대 서울에 들어온 서양인 대다수는 선교사와 외교관이 아니면 정부가



〈그림 2〉 1910년경의 서울 일본인 거류지. [사진으로 보는 서울 백년]

초빙한 교관들이었으나 일본인과 청국인은 서울 주재 관리와 주둔군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상인이었다. 이들은 한국인 가옥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주택 겸 상점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들의 거류지가 지정된 것은 곧 서울에 새 상가(商街)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했다. 특히 청상(淸商)은 조선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발판 삼아 지정된 거류지 이외의 영역으로 상권을 확장했다. 청(淸) 상무공서가 자리 잡은 낙동(洛洞, 현재의 명동 중국대사관 자리 주변)을 중심으로 구리개와 소공동 일대, 수표교 남쪽, 서소문 주변이 청국인 상가(商街)가 되었다. 청국 상인들은 상무공서 맞은편, 현 중앙우체국 자리에 상업회의소 격인 중화회관을 세우고 서울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들 중 일부는 청국인 상가를 벗어나 칠패와 배우개, 선혜청 앞에서 열리는 조시(朝市)에까지 진출했다.

6)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577쪽.

한편 일본인 거류지로 지정된 진고개(현재의 충무로) 일대로 상가가 되었으나 위치가 서울 남쪽에 치우쳐 있었던 데다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이어서 중국인 상가에 비하면 무척 한산했다. 당시 일본 상인들은 자기 집 앞에 이런 저런 물건을 진열해 놓고 조선인을 내세워 영업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sup>7)</sup>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윽고 자국의 무력(武力)을 배경으로 조선인 상점가와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1891년 일본 영사관은 「노점영업규칙」을 제정하고 순사를 배치하여 일본 상인들이 거류지 밖으로 다니며 행상(行商)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상인들은 진고개 거류지를 벗어나 남대문 선혜청 창고 앞 조시(朝市) 등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sup>8)</sup>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서울에 있던 청상(淸商)들은 일시 퇴각했고, 일본 상인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했다. 일본 상인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선인들의 시장과 상가로도 세력을 확장했다. 이 해 말, 남대문로에 일본인 점포가 처음 등장했는데,<sup>9)</sup> 1897년경에는 남대문로 큰길 가 전체가 일본인 점포로 채워지는 지경이 되었다.<sup>10)</sup> 일본 상인들이 대거 ‘국중(國中)의 대로(大路)’인 남대문로로 이동하자 1897년에는 일본 영사관, 일본 거류민 총대역장(總代役場), 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가 모두 남대문로와 진고개가 만나는 지점, 현재의 충무로 입구 한국은행 앞 광장으로 이전했다.<sup>11)</sup> 일제 강점기 서울 상업의 중심지이자 현재에도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명동 상가의 원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부산, 인천, 원산 등의 개항장에서도 같은 과정이 진행되었다. 개항장 외국 상인들은 외국산 면직물과 면사, 생활 잡화 등을 수입해 팔았고, 조선산 쌀과 콩, 우피(牛皮), 사금 등을 사들여 본국으로 수출했다. 개항장으로 몰려온 조선인 객주들은 이들의 매관(買辦) 노릇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국 상업의 중심지라는 지위를 잃었으며, 개항장 도시들은 일본이나 중국 도시들과 직접 연결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내륙 도시가 쇠퇴하고 항구 도시가 번성하는 식민지적 도시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도시구조의 기본 틀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 도시의 내부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외국 상인 거류지와 조선인 거류지가 뚜렷이

7)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577쪽.

8) 四方博, 1941 『京城商工會議所25年史』 大海堂印刷株式會社, 28-30쪽.

9)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635-6쪽.

10) 『通商彙纂』 제52호 호외, 「28年中 京城商況年報(29年 7月 6日附 在京城領事館報告)」 63쪽.

11) 京城府, 1934 『京城府史』 2, 664-5쪽.

구분되는 이원적 도시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이 이원성은 생활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관철되었다. 개발과 저개발, 문명과 야만이 공존하는 이원성과 차별성이 곧 ‘식민지성’이었다.



# 시장규칙과 공설시장의 등장

진주완(독립기념관)





# 시장규칙과 공설시장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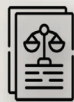
진 주 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목 차



강점이전  
시장의 변화



시장규칙의  
제정



3·1운동과  
시장의 변화



1930~40년대  
시장의 변화

---

# 1. 강점이전 시장의 변화

---



## 조선 후기 시장의 발달

---



임진왜란 이후 장시의 발달



“전국에 장이 서지 않는 곳이 없다”



장날의 정례화 : 5일장의 출현

---



## 조선 후기 시장의 발달

---



18~19세기 전국의 시장은 1천개소 이상



각지에 대규모 시장의 출현



송파, 강경, 전주, 마산, 원산, 평양 등

---



## 조선 후기 시장의 발달

---



거래 뿐 아니라 오락과 소통의 공간



다수의 군중이 모여면서 혼잡이 발생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



## 시장의 구성원 - 객주와 여각

---



위탁판매 + 대출 + 환전 + 보관



거래를 중개하면서 숙박도 겸함



평안도에서는 양반이 객주를 겸업하기도 함

---



## 시장의 구성원 - 거간꾼

---



흥정을 붙이고 수수료를 받음



수수료는 매매액의 1~3% 가량



교환 · 숙박 · 금융 등 다방면에서 활동

---



## 시장의 구성원 - 보부상

---



봇짐을 매고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



19세기 말 전국적인 조직 결성



친정부적 단체 - 독립협회 해산 주도

---



## 외국상인의 진출과 시장의 변화

---



개항과 외국상인들의 진출



일본상인과 청상인 간의 대립



청일전쟁 승리로 일본상인이 주도권 장악

---





## 외국상인의 진출과 시장의 변화

---



외국상인들에 대항하기 위해 회사 설립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



일본상인들이 시장을 잠식해 나감

---

---

## 2. 시장규칙의 제정

---



## 시장조사사업과 「시장규칙」 제정

---



강점 이후 1913~1917년 시장조사사업 실시



유럽의 시장관리시스템을 연구



독일인 경제학자 비덴펠드를 초빙

---



## 시장조사사업과 「시장규칙」 제정

---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시장규칙을 마련



1914년 9월 「시장규칙」을 제정



1960년 「시장법」 제정 전까지 적용

---



## 「시장규칙」의 내용

---



시장을 성격에 따라 1-4호로 구분



시장의 개설 · 운영 · 폐지 전반을 다룸



‘시장공영화’ 원칙 제시

---



## 시장의 구분 - 1호시장

---



재래시장을 1호 시장으로 구분하고 관리



시장정리사업을 실시, \*시장세를 징수



시장세는 지방세 수입의 중요한 세원

---

\*약 1% 정도를 징수(점포이용료 별도)





## 시장의 구분 - 1호시장

---



가축시장 · 땔감시장 등의 특수시장 포함



거래액이 큰 가축시장은 중요한 관리대상



땔감시장은 주로 동절기에 개장

---



## 시장의 구분 - 2호시장

---



시장규칙 제정 당시 2호시장이 없음



1919년 서울에 2호시장이 출현



이후 공설시장, 공설일용품시장으로 불림

---



## 시장의 구분 - 3호시장

---



청과물 ·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경매시장



오늘날의 가락동시장 / 노량진시장에 해당



부산과 서울에 중앙도매시장이 건설

---



## 시장의 구분 - 3호시장

---



대규모 도매시장을 건설하기에 자금부족



사설도매시장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



일본인상업자본이 도매시장을 운영

---



## 시장의 구분 - 4호시장\*



1896년 인천에 미두취인소가 설립



미곡의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



오늘날의 주식시장과 같은 역할

\*1920년 개정으로 시장에 편입



## 「시장규칙」 제정의 의미



표면적으로 시장을 관리 · 감독하는 제도



조선의 상업구조 재편 & 일본인 진출 목적



시장의 신설 · 이전 · 폐쇄를 독점 관리



## 「시장규칙」 제정의 의미

---



조선인 객주들이 상회사를 설립하고자 함



회사령을 통해 객주회사 설립을 제한함



시장규칙을 통해 객주를 유통과정에서 배제

---



## 「시장규칙」 제정의 의미

---



일본상업자본이 대출을 받아 상권 장악



영세한 조선인자본은 이들에게 종속



일본인 - 도매상 / 조선인 - 소매상 구조

---

## 3. 3·1운동과 시장의 변화



### 3·1운동 직전 조선의 경제상황



1914년부터 일제는 재정자립계획 수립



조선 내 재정수입으로 \*식민지배자금 마련



목적 : 총독권력 ↑ 일본내각의 영향력 ↓

\*식민통치를 위해 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음





## 3·1운동 직전 조선의 경제상황

---



1919년까지 재정보충금 0원을 목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늘림



조선인의 불만이 증가

---



## 3·1운동 직전 조선의 경제상황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 물가상승



1917년부터 물가가 급격히 상승



일본에서도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

---



## 3·1운동 직전 조선의 경제상황

---



일본의 공업화로 인한 쌀 수요 증가



쌀 가격상승에 따른 투기자본 유입



쌀값폭등으로 일본내에서 폭동이 일어남

---



## 3·1운동 직전 조선의 경제상황

---



일본 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쌀 매수



조선의 쌀값도 동반 폭등



일본상인들이 조선쌀 매점하다 발각

---



## 3·1운동 직전 조선의 경제상황



하루 종일 일해도 쌀 한 되 값을 벌지 못함



“중류 이하 사람들은 모이면 쌀값걱정”



쌀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염매소 설치



## 3·1운동 직전 조선의 경제상황



미곡염매를 기다리는 모습(19180820)





## 3·1운동 직전 조선의 경제상황

---



1918. 8. 28. 종로소학교에서 소요발생



\*배급받던 노파가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1천명 이상의 군중이 시위를 벌임

---

\*오보라는 기사가 보도됨



## 3·1운동과 철시투쟁

---



3·1운동 시기 상인들이 철시투쟁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거래를 거부함



일본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음

---



## 3·1운동과 철시투쟁

---



일본인들이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 겪음



경찰이 동맹폐점 주도자를 검거



상인들에게 강제로 개점하도록 함

---



## 공설소매시장의 등장

---



일본인에게 생필품 공급기관의 필요



물가조절기관으로서의 역할



식민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관영시장’

---



## 공설소매시장의 등장

---



1919년 종로와 명동에 공설시장 개설



확산 : 인천 · 부산 · 대구 · 평양 · 군산 등



대도시 및 일본인이 많은 항구에 설치됨

---



## 공설소매시장의 등장

---



지정판매인제도 : 아무나 팔 수 없음



지정가격제 & 외상거래 금지



위생단속 및 판매인에게 각종 혜택 제공

---



## 공설소매시장의 한계

---



부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규모



인근 사설시장과의 경쟁



일본인만을 위한 시장

---

---

## 4. 1930~40년대 시장의 변화

---



## 지방제도의 변화와 시장

---



1930년대 지방제도의 변화



부 · 읍 · 면에 많은 권리를 부여



각지에서 \*공설시장 설립이 활발

---

\*관이 관리하는 재래식 시장을 의미



## 지방제도의 변화와 시장

---



시장의 신설 · 폐쇄 · 이전이 지역사회의 이슈



시장을 둘러싸고 지역내 갈등 발생



일본인거주지로 시장 이전 & 조선인 반발

---





## 지방제도의 변화와 시장

---



“시가지정리”을 명목으로 시장을 폐쇄 · 이전



일본인거주지로 시장 이전 & 조선인 반발



영세상인들의 불만과 반발이 이어짐

---



## 조선공업화와 시장

---



조선공업화정책의 추진으로 공장지대 등장



노동자들의 생필품 수요 증가



공장지대에 시장이 들어서게 됨

---



## 조선공업화와 시장

---



주요 공업지대에 시장 개설



부산 · 평양 · 영등포 · 인천 등



지정상인에게 특혜 논란

---



## 조선공업화와 시장

---



북한지역에 공장지대가 다수 조성됨



공장노동자가 몰리면서 시장개설이 폭증



평양 · 청진 · 나진 · 원산 · 진남포 등

---



## 중앙도매시장의 등장

---



도시 단위 도매시장의 필요성 대두



일본에서는 대도시마다 도매시장 설치



목표 : 유통구조 간소화를 통한 물가안정

---



## 중앙도매시장의 등장

---



부산에서 먼저 중앙도매시장 건설(1935)



사설시장들은 인수하여 공영화



오늘날 영도구 대교동에 위치하였음

---





## 중앙도매시장의 등장

---



전시체제로 인한 유통구조 일원화 필요성



기존 사설도매시장 허가기한 만료(1937)



서울역 구내에 중앙도매시장 건설(1938)

---



## ‘배급소’로서의 공설시장

---



중일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조합연합회 결성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독려

---



## ‘배급소’로서의 공설시장

---



물품배급을 위한 공설소매시장 건설



전통적 시장이 아닌 배급시설로 설계



1940년대 서울시내 곳곳에 세워짐

---



## 공설시장제도의 한계

---



공설시장에 배타적 독점유통권을 부여



일본상업자본에 유리 & 영세상인 반발



허가기한 만료 후에도 무허가 영업 성행

---



## 공설시장제도의 한계

---



일본인 선호의 식료품 위주의 판매



조선인들은 마포에서 생선류 구입



많은 일용품이 행상을 통해 거래됨

---



## 공설시장제도의 한계

---



전체 유통에서 도시 · 일본인 비중 제한적



청과물의 2/3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



해방 이후 공설시장제도 백지화

---

# 정리



## 시장규칙과 공설시장제도



「시장규칙」을 통해 시장통제력 확보



공설시장제도를 통해 시장구조를 재편



시장의 폐단 개선 / 유통구조 합리화 목적



## 시장규칙과 공설시장제도

---



일본인 · 대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



영세한 조선인 자본들이 타격을 입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 회사를 설립

---



## 시장규칙과 공설시장제도

---



전시체제기 시장을 통한 물가통제계획 수립



상인들에게 정해진 가격에 팔도록 강제



그러나 실효성은 크지 않았음

---





## 시장규칙과 공설시장제도

---



해방 이후 일본인이 철수



공설시장제도는 완전히 붕괴



공설시장제도의 재도입은 1985년\*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개설

---

# 감사합니다!

---



# 전국 오일장을 누빈 보부상

이창식(세명대학교)





# 전국 오일장을 누빈 보부상

이창식(세명대학교)

## 1. 보부상과 장시

보부상(褓負商)은 전통사회에서 장시(場市)를 중심으로 붓짐이나 등짐을 지고 행상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교환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자 역할을 했던 전문상인으로,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인 행상(行商)이 보부상으로 조직화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19세기 중엽부터 보상 또는 부상이 남긴 기록들이 확인되며, 조직이 관(官)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장시 곧 5일장 시장을 중심으로 행상하면서 사는 이들과 생산하는 이들 사이에 경제적 교환을 매개하던 전문 상인이다. 주로 전통시장을 돌며 지방의 물품교환을 주도하였다. 붓짐장수, 장돌뱅이라고도 불렸다. 길을 따라 시장을 무대로 살았던 보상과 부상을 동시에 말한다.

보부상 집단 곧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들은 지역마다 모여서 계(契)를 만들고 사촌의 의(誼)를 맺어 형제보다 더 두터운 정을 나누며 살았다. 이곳저곳 무리지어 떠돌던 신세였지만 옷사람에 대한 예절도 깎듯하게 지켰고, 동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도왔다. 조선 보부상단은 19세기 이후 상단조직을 통해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는 것’, 바로 충의정신 곧 대동보국(大同保國)을 생활신조로 삼고 살았다. 나라에 일이 생겼다면 기꺼이 ‘밥 먹던 자는 숟가락을 내던지고, 잠자던 자는 이불을 걷어 차고’ 달려 나갔다. 그만큼 단결의식과 동무의식이 강하였다.<sup>1)</sup>

보부상은 서양의 길드(guild)보다 강한 상거래 공동체로서 엄격한 규율에 의해 운영되어졌으며, 민주적 방식에 의한 임원 선출과 조직 등을 갖추고 활동하였다. 또

1)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252-254쪽.

한 전국 5일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의 연결고리 역할, 개항 이후의 국제교류 등에 관여를 하였고, 공문제(公文祭) 등의 문화가 현재까지도 일부 계승되고 있다. 길 위의 장돌뱅이 ‘보부상’은 전통사회의 문화의 끈이다. 보부상의 길을 ‘솔트로드’라고 부르고, 실크로드와 차마고도가 있듯이 소금길은 전통문화 영역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옛길유산 중에 가장 매력적인 역사성을 담지하고 있다. 보부상 길은 돈 줄이면서 전통문화가 유통되었던 그물망<sup>2)</sup>이었다.

보부상의 덕목은 상부상조의 대명사라는 점이다. 그들을 대표하는 구절인 환난상구(患難相救)처럼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남기 위해 뭉쳤다. 이러한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길드보다 강한 결속조직 보부상<sup>3)</sup>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기 위한 시초로서의 역할과 상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대 사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 이들이 교역문화의 중심에 자리하였다.

보부상의 장점에는 그들이 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민선(民選) 투표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는 점에서 보부상의 조직을 더 높이 평가하게 만든다. 그들의 길드적 조직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이미지화시켜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구성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장금류 드라마, 장사의 신 같은 상거래의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다. 5일장의 활성화, 보부상촌 건립,<sup>4)</sup> 객주 테마파크도 이러한 맥락에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 엄격한 사회제도로 뿌리내린 시대였다. 그 중에서 가장 하층계급으로서 천하게 여겨진 상인들의 삶은 천민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오죽하면 상놈이라는 단어가 비천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이 될까. 하지만 그들의 비천한 삶이 그들 스스로 동병상련(同病相憐)하여 서로 힘으로 소통과 하심을 모아 뭉치게 만들었다. 그 중 보부상은 단순히 단결하는 마음으로만 뭉친 것이

2) 현재 보부상과 관련한 기록, 유물, 유적 등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저산팔읍상무좌사 보부상 유품(홍산 유품)이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로 지정되었으며, 예덕상무사 유품이 제30-2호, 저산팔읍상무우사 유품(임천 유품)이 제30-3호, 원흥주육군상무사 유품이 제30-4호, 고령상무사 유품이 제30-5호, 창녕상무사 유품이 제30-6호로 지정되었음. 또한 울산우지회의 문헌이 시도민속문화재 1호, 보령 원흥주육군상무사 임소가 시도기념물 191호 지정되었으며, 함양 상무좌우사점장하경순포선 불망비가 문화재자료 제265호로, 울진 내성행상 불망비가 문화재자료 310호, 진주상무사가 문화재자료 제533호 등으로 지정되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국가 및 지방 문화재 지정확대 가능성도 있음.

3) 이광규, 《보부상》, 문화재관리국, 1969, 민속자료 16호.

4) 윤규상, 《예덕상무사》, 1997, 45-67쪽. 예산군 보부상촌 건립 추진 중.

아니라 여러 가지 예의규범이나 서류상의 절차, 증표 등이 존재했을 만큼 조직화된 단체로 자리하였다.

보부상의 존재에는 계급사상에 저항하는 세력의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직접적인 저항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적 진원지의 중심에 있었다. 자신들이 가장 약하고 미천한 계급이지만 서로 단결하여 힘을 모아 나라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민족의 대동단결(大同團結)의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점 보부상의 이야기를 통해 한민족의 숨겨진 얼과 내면을 발견하여 문화콘텐츠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한민족이 가지는 고유한 성향을 잊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지속할 수 있다.

튼튼하게 조직화된 보부상은 상업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정부와 손을 잡고 정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해내었다. 그들의 전국 곳곳 퍼져있는 그들만의 건실한 네트워크로 전쟁 중에 무기와 식량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정보도 수집하여 알려 주었다. 그 예로는 1592년 임진왜란 때에 권율장군에게 식량을 조달하였으며, 1636년에는 병자호란에 청나라에 포위되어있던 남한산성에 군량을 운반하여 주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한곳에 쏠릴 수 있는 물자를 널리 퍼뜨려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에도 일조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이들의 정보력 때문에 훗날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로 이용당하는 부정적인 측면<sup>5)</sup>도 있으나, 1866년에는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 왔을 때 보부상은 대원군이 명에 따라 프랑스 군과 싸워 이겼다. 이것이 그들의 힘이 아닌가 싶다. 사회적 약자인 상인이었지만 끈임 없는 조직망 구축과 정보력 그리고 무엇보다 대동단결하려는 동무정신으로 경제 활성화부터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의 이러한 상인 이외의 새로운 모습을 문화콘텐츠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보부상은 점차 쇠퇴하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보부상의 역사적 정체성 - 공동선 노력 보부상의 전통과 정신 - 신뢰 위주, 사발통문의 동무의식을 드러내었다. 오일장 상권의 신뢰 유지와 이윤 추구를 도모하고자 보부상단을 조직하였다. 상업 중심의 공동체 조직이었다. 〈비변사완문〉등에는

5) 조선총독부 자료, 역상이간정책 (1925) .

보부상 백달원은 이 조직을 이용해 이성계를 도와 조선건국에 기여하였다.<sup>6)</sup> 조선초기에는 보부상은 특수한 길드적 조직으로 구성된 상인 단체로 거듭나면서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여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정치 세력화와 국란극복에도 한 몫을 하였다.<sup>7)</sup> 근대이행기에는 의병운동, 독립운동에도 관여하였다. 이른바 사발통문 돌리기를 통해 여론과 응집을 주도하였다. 3.1운동 등 주요 오일장 시위가 장터 중심이라는 것도 보부상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기 탓이다.<sup>8)</sup>

길을 잘 알고 정세 파악이 빠른 보부상은 정경유착 초래, 권력동원 이용 등 부정적인 일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보부상 집단은 공동선(共同善) 추구에 앞장섰다. 조선시대 상업이 천시되었던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거래 질서를 자율적으로 지키고, 봉건사회에서 조직의 지도자를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여 운영하였다. 이 점이 서양의 길드보다 더 가치있는 대목이다. 길드는 상인, 수공업자 중심의 혈연적 요소가 짙은 상인조합이다.<sup>9)</sup>

보부상은 소금길의 5일장 중심으로 한 그물망 구성원들이다. 보부상 유품에는 행상의 고충과 이윤추구의 재미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조직 속에 신뢰, 속도와 정보를 소중히 하였다. 그 지역의 소통과정을 파악하려면 보부상의 활동을 이해하면 될 정도였다. 보부상은 평소에 물물교환의 매개자이지만 유사시에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도 하였다. 장터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집회에 주도집단이 보부상이다. 장터는 그 마을의 지역문화가 확연히 들어나는 공간이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었다. 장터에서 손님을 만나 물건을 사고팔면서 삶을 이어나가는 보부상들에게 장터는 말 그대로 생명의 샘터였다. 5일마다 장터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흥겨운 장사판과 축제판을 벌이는 셈이다. 장, 저자거리, 장날, 장 서다, 장돌뱅이, 시장, 교역민속, 상거래 질서, 상인조직, 5일장, 소금길, 상도 등이 그 발자취이다.

이러한 항목을 전제하여 보부상은 비교적 값비싼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는 봇짐장수인 보상과 그에 비해 값싼 문건을 지게에 이고 다니는 등짐장수인 부상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지금도 5일장에는 그들의 후예가 장사꾼이라는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보부상은 조선 전국 팔도

6) 이성계가 1392년 중상육성정책으로 보부상 조직 하사.

7)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181쪽.

8) 조재곤, 《근대이행기의 상인 보부상》, 서울대출판부, 2003, 5-6쪽.

9)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124쪽, 선질꾼, 바지계꾼 등 별도로 이해.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니며 직접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던 상인들이었다. 여러 가지 예의나 서류상의 절차 등이 존재했을 정도로 꽤나 복잡하고 조직화된 단체였다.

한국인은 조선시대부터 장시<sup>10)</sup>의 오일장 순환거래를 통해 소통해 왔다. 포구와 장터 가는 길은 솔트로드다. 예전에는 장터에 가면 장타령, 아리랑타령을 부르고 흥정을 붙이는 보부상을 보는 것도 장보는 일이었다.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 보부상은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를 접촉시켰다. 장터는 물류의 최소단위로 소비되는 곳, 농어촌 생산물이 유통되었다. 그래서 보부상은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행사와 각종 흥행 항목을 마련하였다.

장 보는 사람들은 패랭이를 쓰고 물미장을 든 보부상을 잘 안다. 보부상은 유별나게도 목화송이가 달린 패랭이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녔다. 용이 그려진 물미장을 짊고 바지 저고리를 입으며 버선 대신 발감개(버선 대신 발에 감는 무명감발)를 감은 가볍고 편리한 차림이다. 패랭이는 평량립 평량자라고도 부른다. 최초 상업 유니폼이다. 등짐장수는 솜방울이 양쪽에 달린 패랭이를 쓰고 쪽지게에다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비교적 값이 헐한 상품을 짊어지고 다녔다. 등짐장수들이 짊고 다니던 물미장에는 구멍을 파서 쌀을 넣었고 쪽지게 밑에는 밥을 담은 단지가 매달려 있었다. 시장끼가 돌면 하늘을 지붕 삼아 아무데서나 밥을 지어 먹었다. 밤이슬을 맞으면서 내를 건너고 산을 넘어 천리길을 누비기도 하였다. 물미장, 체장<sup>11)</sup>은 패랭이(평량자)와 더불어 일반 대중과 보부상을 구분하는 표식이었다.

그들에게는 신용의 화신이다. 보부상은 혈연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상거래의 안배와 분배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른바 동무의식(同務意識)인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자 애썼다. 이를 어기면, 명석말이, 벌금내기 등 징벌이 내렸다. 상거래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지켰다. 떠돌이 생활의 어려움을 동료애로 승화시켰다. 이윤추구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소비자나 관련되기에 더욱 상거래 질서를 강조하였다.

보부상은 물건을 사는 도리에도 원칙이 있고, 파는 이치에도 공유의 저울이 있었다. 이를 잘 지켜내기 위해 특유의 행동강령과 훈이 있었다. 하나로 움직이기 위해 보부상 노래를 부르고 모임에는 대포잔 돌리기를 하고 길에서 만날 때 옷바꿔입기

10) 문정창, 《조선의 시장》, 1941.

11) 신표, 첩문 등 신분증으로 불림.

등을 행하였다.<sup>12)</sup> 뭉쳐서 서로의 권익을 지키고, 그 힘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시장을 지켜냈던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알맞은 이윤추구의 잣대로 교역하며 살았다. 상호호혜를 기본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염원은 보부상의 존재감으로 각인되었다. 장날의 풍요로움 만큼 보부상의 붓짐, 등짐에는 장터의 이야기와 노래가 가득하다.

보부상의 정신은 한국 공동체 의식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이윤추구 사회 속에서 구원들의 상생정신과 단합전통은 본받아야 할 덕목이다. 그 유전자는 크게 세계 속에 한상(韓商)에 있고, 작게는 오일장에 있다. 전통 오일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예전 보부상 조직은 사라졌으나, 한국의 오일장 장날에는 여전히 보부상의 애환과 인정을 느낄 수 있다. 정선 오일장에 가면, 정선아라리를 들을 수 있다. 진도 오일장의 진돗개, 영광 오일장의 굴비, 서산 오일장의 소곡주, 안동 오일장의 간고등어, 안성 오일장의 유기 등을 살 수 있다. 거기예다가 진한 사투리 마음씨도 덩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3)</sup> 충남지역 보부상 곧 상무사(商務社)의 전통맥락과 전승유지는 매우 값지다. 저산팔읍상무사,<sup>14)</sup> 덕산상무사,<sup>15)</sup> 육군상무우사<sup>16)</sup> 등 보부상 조직은 공문제(公文祭)를 모태로 난전놀이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예산 윤규상,<sup>17)</sup> 부여 김재련<sup>18)</sup> 등은 구비적 보부상 공공자산에 일찍 관심을 가지고 지켜 가고자 노력하였다.<sup>19)</sup>

보부상은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아울러 한국 공동체민속유산의 매력을 동시에 담지하고 있다. 한산모시, 김치, 농악, 해녀 등의 종목 못지 않은 문화유산적 가치가 크다. 이 점을 단계적으로 살려 가되, 한국 보부상 상징성을 함께 공유해 가야 할 것이다. 보부상 관련 유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가치는 국가 및 지방문화재 등의 지정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이다. 보부상이 한국의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이어주는 전통문화 가운데 대표적이며, 이러한 사실을 보부상 관련 유품들이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보부상 관련 유품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12)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150-167쪽.

13)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86-199쪽.

14) 최순희, 《저산팔읍상무사유품》, 문화재관리국, 1980, 3-29쪽.

15) 윤규상, 《예덕상무사》, 1997.

16) 황의천, 《육군상무사》, 대천문화원, 2012.

17) 예산 덕산의 마지막 보부상 유품 보존과 보부상놀이 시연 인물.

18) 부여 홍산의 마지막 보부상 영위.

1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내포의 보부상》, 충청남도, 2017.

있는 것이 바로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이다.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한국 상업사에 있어서 한 특징을 간직한 원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상거래사의 상단을 이해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 2 보부상의 조직과 활동

본래는 보상과 부상이 별개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는데,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를 기점으로 흥선대원군이 보부청을 수립·관리하면서 하나로 합쳐지고, 1883년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하여 보상청과 부상청이 합쳐지면서 보부상으로 통틀어 일컫게 되었음. 1885년에는 상리국(商理局)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부상을 좌단(左團, 左社), 보상을 우단(右團, 右社)으로 구별하고, 역원(役員)은 상리국에 통합·단일화시켰다. 1894년에 상리국이 농상공부 상공국으로 이속되었으나, 1895년 해체되고, 상무회의소(商務會議所)가 창설되었다.<sup>20)</sup>

1899년 6월부터 1904년 2월까지 유지되었던 ‘상무사’라는 명칭이 보부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도 조직이 유지가 되고,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기도 하는 등 지역 시장 경제 활동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근·현대에 와서 보부상 조직이 거의 사라지고, 일부는 친목단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충청남도<sup>21)</sup>를 비롯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 그 조직이 남아 있으며, 19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부상들이 남긴 기록, 유물, 유적 등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저산팔읍상무사 전통이 전승 있다. 관할 지역과 조직 구성, 활동 범위는 충남권, 백제문화권에서 제일 컸다.<sup>22)</sup>

그 가운데도 저산팔읍상무사(부여, 임천, 한산, 홍산, 서천, 비인, 남포, 정산), 원흥주육군상무사(홍성, 광천, 보령, 청양, 대흥, 결성), 예덕상무사(예산, 덕산, 당진, 면천) 등을 중심으로 기록유산이 있다. 이들 지역은 조선시대 후기 충청우도(忠淸右道)로 분류되던 지역으로 모두 서해안에 인접해 있다.

충청남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이 남아있는 곳은 경상남도 창

20) 《부여 홍산임천보부상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부여군, 2018.

21) 임동권 편, 《보부상자료집》 천지인 3권, 민속원, 1986.

22) 문화재관리국 편, 《저산팔읍상무사유품》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1980.

녕, 밀양, 영산, 현풍 등지와 울산광역시의 병영, 남창, 목도, 대현, 방어, 서생 등지, 합천과 의령 등지, 진주를 중심으로 한 사천, 곤양, 단성 등임.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군을 중심으로 기록유산이 남아 있다. 그 외에도 강원도·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기록유산이 확인되며, 개인 소장자가 소장한 기록유산도 일부가 있다.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은 상업 활동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목(節目) 등의 공문서와 계약(契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억울한 상황 내지는 집단민원의 사안이 발생하면 올리는 소지(所志), 중앙과 지방관 등으로부터 발급 받은 완문(完文)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내부 임원들의 명단과 역사적 변천사를 기록한 선생안(先生案)과 청금록(靑衿錄), 인장 등도 남아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목류, 완문류, 장정류, 소지류, 청금록선생안류, 특별문서(사발통문),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목은 관청이나 단체 또는 개인끼리 상호 지켜야 할 일정한 규칙이나 규정 등을 세밀하게 작성해 놓은 문서이고, 완문은 관청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어떠한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권리·특권 등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확인 문서이다. 장정은 대한제국 시기에 절목과 완문이 문서 형식에서 사라지고 장정이나 정관, 규칙, 세칙 등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며, 소지는 자신의 소청, 민원, 진정, 매매를 위해 관청에 올리는 민원 관계 문서이고, 선생안과 청금록은 소속된 사람들의 명부이다. 여기에는 반수, 접장을 비롯한 임원 교체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사발통문은 상단의 이해를 집단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주고받는 문서이며, 이 외에도 신분증에 해당하는 험표, 기부금품 회사를 위한 권유문 등이 있다.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은 조선 후기 당대의 보부상의 역사와 조직 및 그 기능,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상업 활동에 대한 문제인식, 당시의 상거래 관행, 지방 통치 구조, 장시, 지역사회 계몽운동과 상인조직의 관계, 한국인 상인 자본의 실상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sup>23)</sup> 보부상 공동체 조직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오일장 등 상거래 현장과 유통양상도 잘 알 수 있다.

## 1) 저산팔읍상무좌사 기록유산(국립부여박물관 소장-국가민속문화재)

저산팔읍상무좌사의 기록유산은 전국 보부상 조직 가운데 최초로 국가민속문화재

2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내포의 보부상》, 충청남도, 2017.



제30-1호로 지정되었다. 저산팔읍은 모시가 많이 생산되는 부여, 홍산, 남포, 서천, 비인, 한산, 임천, 정산 등의 8읍을 말하고, 상무좌사는 보부상들의 조직이다.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저산팔읍상무좌사의 보부상 유품은 7건 8점이며, 이는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이 국가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저산팔읍상무좌사의 기록유산은 목록의 성격을 지니는 것과 규약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되며, 서책의 형태로 20세기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저산팔읍상무좌사의 주요 기록유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충청도비인임소청금록(忠淸道庇仁任所千衿錄)』 :  
저산팔읍상무좌사에 현존하는 자료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 명단을 수록한 자료로 명단 기재 연도가 1881년임.
- 『임홍청금록(林鴻淸衿錄)』 :  
임천과 홍산 보부상의 19세기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비람좌지사소임책(庇藍左支社所任冊)』 :  
1910년 2월 비인과 남포지역의 지역별 보부상 명단 수록.
- 『서부좌사선생안(舒扶左社先生案)』 :  
1910년부터 접장(또는 장무원)의 명단을 기록한 자료.
- 신표본과 신표 :  
신표는 조직에 소속된 상인에게 지급했던 증명서이며,  
신표본은 신표 발급을 위한 지침서임.

그 밖에도 『청금록(靑襟錄)』 (1946-1980), 『요증명부(僚中名簿)』 (1949-1962), 『서부청금록(舒扶靑襟錄)』 (1949-1975) 등과 필사본 형태의 절목(節目), 완문(完文) 등을 비롯해서 『혜상공국서(惠商公局序)』 (1883), 『상규단취지서』 (1907) 등이 있고, 인쇄본 형태의 『상무연구회규칙(商務研究會規則)』 (1920), 『동아상무조합정관(東亞商務組合定款)』 (1924), 『상무회규칙(商務會規則)』 (연대 미상), 『판하상리국절목(判下商理局節目)』 등이 있다.

## 2) 저산팔읍상무우사 기록유산(부여국립박물관 소장-국가민속문화재)

저산팔읍상무우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보부상 조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결성된 조직임. 저산팔읍은 모시가 많이 생산되는 부여, 홍산, 남포, 비인, 한산, 임천, 정산 등의 8읍을 말하고, 상무우사는 보상들의 조직이다. 이 지역 상인들의 활약상이 담긴 현존하는 고문서 중에는 1830년대에 작성한 것도 보이며, 50여건의 고문서가 현재 남아 있다. 저산팔읍상무우사의 보부상 유품 4건 106점이 국가민속문화재 제30-3호로 지정되어 있다.

저산팔읍상무우사의 기록유산은 다른 지역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이 주로 규약과 명단의 성격을 지니는 것에 비해서, 각 읍의 군수나 현감이 상무우사의 좌상이나 회원, 집사 등을 임명하는 차정서 25건,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 43건, 행정기관에서 받은 전령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 관청과 보부상 단체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기록유산이 되고 있다. 저산팔읍상무우사의 주요 기록유산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채정첩[差定帖] : 1845년 6월 한산군수가 이직우(李直偶)를 상고(商賈) 좌상(座商)에 임명하는 문서 등.
- 소지(所志) : 정산, 부여, 홍산, 임천, 서천, 비인, 남포 등의 상인이 1892년 부여고를 원에게 올린 등장(等狀) 문서 등.
- 전령(傳令) : 1903년 상무사의 부사무가 은산, 홍산, 비인, 남포의 상무 좌지사 두령들에게 보낸 문서 등.
- 통문(通文) : 1909년 보부상의 중앙 조직에서 각도 그 산하 조직으로 장무원의 부당한 임무와 대우에 대한 시정을 통고하는 문서 등.
- 매매문기(賣買文記) : 1894년 가난 때문에 초가3칸, 채전(菜田) 2마지기, 7부(負)를 20냥에 판다는 내용을 담은 가대매매문기(家垓賣買文記).
- 수기(手記) : 1903년 좌지사의 영위가 우지사에게 보낸 문서.
- 『한성부완문(漢城府完文)』 : 1879년 9월에 한성부에서 충청우도 서천본방에 발급한 완문(完文).

- 『우포청완문(右捕廳完文)』 : 1879년 10월 우포청에서 충청우도 서천본방에 발급한 완문(完文).
- 『혜상공국관문등서책(惠商公局關文騰書冊)』 : 혜상공국(惠商公局)에서 작성한 관문(關文)을 베껴 적어둔 자료.
- 『상규단취지서(商規團趣旨書)』 : 1906년 12월에 저산팔읍 지역에서 조직된 상규단(商規團)의 결립 취지와 규약을 적은 것.

이외에도 『판하상리국절목』(1887), 『상무사장정부칙』(1901), 『상무협회규칙』(연대미상), 『제국실업회상무과세칙』(1909), 『충남상업주식회사규칙』(1909) 등이 있다.

- 「판교 보부상 영위 비석」 : 마대리 공동묘지에 있는 보부상 영위 채영선, 반수 홍재섭, 정문보 등 세 사람의 비석으로 1970년대 두령 지태관, 도왈순 씨가 세 분을 합장하고 비문을 건립하였음.
- 「비인군수 강원노 군수 만세 송덕비」 : 1908년 저산팔읍상무사에서 세웠으며, 비인군수 강원노가 상업촉진을 위해서 보부상을 지원했던 것을 기리는 송덕비임.
- 「영위 유지원 공적비」 : 서천군 기산면 원길리에 소재하며 1980년에 세운 마지막 영위를 지낸 유지원의 공덕비임.
- 「저산팔읍우사 권회수 반수 임명장」 : 서천군 화양면 화촌리 권주호씨택에 소장하고 있으며, 1935년 저산팔읍상무사 반수로 받은 임명장임.

또한 저산팔읍상무사 기록유산 가운데는 「판교 보부상 영위 비석」, 「비인군수 강원노 군수 만세 송덕비」, 「영위 유지원 공적비」 등의 비석 3기와 개인이 소장하고 하고 있는 「저산팔읍우사 권회수 반수 임명장」도 있다.

### 3) 예덕상무사 기록유산(예덕상무사 보부상유품전시관 소장-국가민속문화재)

예덕상무사 기록유산은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록유산이다. 예덕상무사 유품 3건 25점이 1976년 5월 21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예덕상무사에는 1851년의 『예산임방입의절목』을 비롯해서 116건의 기록유산이 현재 보존되어 있다. 예덕상무사 소장 기록유산은 고문서 보다는 서책 형태의 기록유산이 많으며, 좌사보다는 우사 쪽 기록유산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2015년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 예산, 덕산, 면천, 당진 편』(2015)이 출판되어 초서로 된 글자를 정자로 다시 적고, 어려운 한문을 현대어로 쉽게 풀이해서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주요 기록유산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명칭	내용	연대
1	예산임방절목(禮山任房節目)	1851년 작성한 것으로 예산임방입의절목, 벌목, 신구접장고체 규식, 초상시부의전마련기, 비방청부전기, 한성부완문 신창설완문서 등으로 구성.	1851
2	선생안(先生案)	1851년의 김상렬(金相烈)을부터 20세기까지 각 접장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록.	1851-20세기
3	예산본방좌목(禮山本房座目)	1851년 작성된 것으로 조직이 최초에 결성되던 당시의 인적구성을 보여주는 기록	

### 4) 원흥주육군상무사 기록유산(국가민속문화재)

원흥주육군은 충청남도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홍성, 광천, 보령, 청양, 대흥, 결성 등의 지역을 아우르는 말임. 원흥주육군상무사의 유품 19건 34점이 1992년 7월 24일 국가민속문화재 제30-4호로 지정되었다. 원흥주육군상무사의 기록유산은 다른 지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명단이 기재된 기록유산이 포함

되어 있으며, 갑오개혁 이후의 근대적 양식으로 작성된 소장이나 청원서 등의 고문서가 일부 남아 있다.<sup>24)</sup> 원흥주육군상무사의 주요 기록유산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명칭	내용	연대	형태
1	동아개진교육회상무 과세칙(상무장정) (東亞開進教育會商務 課細則(商務章程))		1908	관부문서, 증빙류 1책
2	상무연구회규칙(商務 研究會規則)		1920	관부문서, 증빙류 1책
3	청금록(靑衿錄)	1851년에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원흥주육군상무사 소속 보부상 임 원명단을 적은 책임.	1851- 현재	4책
4	선생선안 (先生仙案)	초대접장인 임인손 이하 1966년 당시 타계한 접장 111명의 명단.	1966	
5	상리국서 (商理局序)	보부상 관리기구인 군국아문 부속 해상공국을 1885년 8월 10일 상 리국으로 바꾸면서 당시의 서문, 그해 9월 11일자 전교(傳敎), 9월 15일자 계문(啓文), 9월 19일과 1887년 2월 27일자 전교 및 17 개 항목의 절목 등을 실은 문서.	1887	
6	동아개진교육회상무 과세칙 (東亞開進教育會商務 課細則)	상무장정(商務章程)	1908	
7	완문(完文)	보상 조재수(趙在壽, 字 德仲)가 자신의 소유 전답을 보상소에 기 증한 사실에 대해 관에서 확인하 고 발급한 문서.	1887	
8	완문(完文)	대천장의 시전(市廛)에서 비인과 남포 상민들에게 종전의 배가 되 는 세금을 부당하게 걷자 이에 반 발하여 남포현에 시장을 새로 창 설한 것을 관에서 확인하고 발급 한 문서.	1889	

24) 조영준, <19-20세기 보부상 조직에 대한 재평가>, 《경제사학》 47집, 경제사학회, 2009.

번호	명칭	내용	연대	형태
9	부의절목 (賻儀節目)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금액과 상가(喪家)에 제공하는 종이(紙), 초(燭) 등에 관한 규정과 벌칙 14조를 적음.	1884	2책
10	세절찬(歲節饌)	정월 절사(節祀)를 위해 임소 각 임원들에게 필요한 제수를 분담시키기 위해 작성한 문서.	1907	
11	상무상조계 (商務相助契)	계원을 모집하고 출자하도록 하여 자본을 마련한 후 년 3할로 식리하는 등의 조례를 작성.	1923	
12	상무조합우사정관(商務組合右社定款)	일제 말기에 만든 원홍주육군상무우사의 정관.	일제 강점기 말기	
13	원홍주육군상무우사 위판	1932년에 중건한 상무우사의 목적을 적은 중건기(重建記)와 출연금을 적은 방명록(芳名錄)으로 구성.	1932	
14	충청남도상업주식합 자회사규칙 (忠淸南道商業株式合 資會社規則)		1909	
15	상규단취지서 (商規團趣旨書)		1908	
16	소지(所志)	신구 접장 간의 알력 내용이 담겨 있는 청양보부상 문서	1899	
17	제각 중건기 현판			
18	제각 중건 방명록	건립비용 제공자의 방명록		

원홍주육군상무사와 관련해서 「최돈옥 기공비」, 「반수 최성덕 선생 공덕비」, 「원홍주육군상무사 부영위 송요철 공적비」, 「홍도원 선고인합동위령비(先故人合同慰靈碑)」, 「반수정건모비(班首鄭建謨碑)」, 「원홍주등육군상무사단체비(元洪州等六郡商務社壇祭碑)」 등의 비석 6기와 「홍도원 묘사 중건기」 현판 1기 등도 있다.

- 「최돈옥 기공비」 :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비선거리에 세워져 있던 비로 전중 추원의관 은홍산우지사(殷鴻山右支社) 공사원 최돈옥 기공비임. 1902년 7월에 은홍상우지사에서 세운 것으로 은홍산우지사의 공사원이었던 최돈옥(崔燾郁, 1842-1910)이 시장을 관리하면서 정직한 상거래를 주도하고 동학농민이 일어나자 동학도를 회유하였으며, 남포지역의 동학군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워 홍주목사 이승우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내용임.
- 「반수 최성덕 선생 공덕비」 : 반수를 지낸 최성덕(崔成德)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2013년에 세운 비석.
- 「원홍주육군상무사 부영위 송요철 공적비」 : 화성양조장을 경영하던 송요철이 상인들을 단합시키고 상무사 회원들만 사용하는 상여를 만들어 운영한 것 등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공적비.
- 「선고인합동위령비(先故人合同慰靈碑)」 : 조선 후기 홍도원에 묻힌 원홍주육군 상무사 소속의 이름 없는 보부상들을 제사하기 위한 위령제단.

보부상 기록유산은 한말 보부상의 역사·조직·기능과 상업활동 연구에 귀중하고도 필수적인 자료들이다. 자료의 기능과 여건 확보로 정통성을 간직하고 있다. 한국 공동체민속의 자율성과 자치성, 소통성과 동무성, 신뢰성과 신명성을 지닌다.<sup>25)</sup> 반농반상으로 모습으로도 연계되었다. 산판 등 목상으로서 보부상, 모시의 수공업상업에서 물품 조정인 보부상, 반어반상의 소금장수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전통사회에서 집단공동체 상행위민속을 주도한 보부상무사는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었다.<sup>26)</sup>

1860년대 이후에는 양반과 승려들도 보부상 조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평안도 용천군수를 지낸 정준용(鄭俊鎔)은 1905~1906년 예덕상무사의 리더인 영위(領位)를 맡았다. 오위장(五衛將)을 지낸 전직 관리들도 참여했다. 1889~1890년 명단에는 충남 당진 영탑사(靈塔寺)의 승려도 있다. 1898년 서울에서 보부상을 중심으로 황국협회가 결성됐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당시 중앙·지방 권력이 상인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포섭에 나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순수한 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상업을 명분으로 내걸면서 동시에 정치를 포함해 다양한

25) 정승모, 〈호서지역 보부상단의 조직과 활동〉, 《부보상 다시 길을 나서다》, 민박, 2010.

26) 이창식 외, 《부여홍산입천보부상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부여군, 2018.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했을 가능성도 있다.<sup>27)</sup>

보부상 기록에는 1906~1907년의 조직원 명단도 있다. 이 명단에는 중국 상인인 화상(華商) 왕문괴(王文魁)와 일본인 상인 상야위길(上野爲吉)이 예덕상무사 간부에 해당하는 부접장(副接長)을 맡은 것으로 나와 있다. 외국 상인과 한국 상인을 갈등 관계로만 보기 쉽지만, 협력과 공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외국 상인까지 참여하면서 조직 성격도 애초의 장돌뱅이 동업조합(同業組合)에서 '지역상인 연합'이나 지역 공동체로 확대 변모한 측면도 읽을 수 있다.

#### 보부상 상무사 대표 조직

충남 저산팔읍상무사/부여, 서천, 남포, 임천, 홍산, 비인, 한산, 정산

충남 원홍주육군상무사/홍성, 보령, 광천, 청양, 대흥, 결성

충남 예덕상무사/예산, 덕산, 면천, 당진

경북 고령상무사<sup>28)</sup>

경남 창녕상무사<sup>29)</sup>

조선후기 홍산상무사 시장권<sup>30)</sup>

영위-반수-접장-대방-도수공원-공사원-임회원(단원)

장단위: 대방-비방-집사

순환경로 2구/은산-홍산-부여-임천

-정산

1구/한산-서천-비인-남포

2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내포의 보부상》, 충청남도, 2017.

28) 이창식, 〈낙동강 유역 보부상 민속현상과 지역사회〉, 《민속과 지역사회》, 민속원, 2007, 고령 부문, 《문화재대관》, 문화재청, 2005, 필자 해제.

29) 이창식, 〈낙동강 유역 보부상 민속현상과 지역사회〉, 《민속과 지역사회》, 민속원, 2007, 창녕 부문.

30)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웅진, 1992.



예덕상무사는 6·25 전쟁 직후인 1954년에도 50여 명의 조직원을 확보했을 만큼 탄탄하게 조직을 유지하였다. 보부상 조직이 일제 시기와 광복, 전쟁을 거치면서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상호 부조와 자율 규제 등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1850~1860년대 조직 규율에는 '시장에서 억지로 판매한 자, 볼기 30대' '동료에게 사납고 고약하게 행동한 자, 볼기 30대' '문상을 하지 않은 자, 볼기 15대, 벌금 5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883년 규율에는 다수결에 따른 접장 선출이라는 '민주적 선거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 3. 보부상의 의례와 놀이 성격

충남보부상은 서양 길드보다 강한 상거래 공동체 조직, 규범과 정신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다.<sup>31)</sup> 공문인 각종 문서와 구술자료가 입증한다. 교류의 동무화합정신, 공동체사회의 상도보국과 진충보국 애국정신, 신의유지의 고객존중정신, 물망언, 물패해, 물음란의 예절의리정신 등이 그것이다. 필자와 만났을 때, "가난하지만 자랑스럽게 뭉쳐 살았던 보부상의 정신" 이라고 김재련은 말하였다.

저산팔읍상무사, 특히 홍산상무사 핵심 특산품은 모시였다. 이른바 일제강점기 초까지 홍산장은 모시 유통의 1번지였다.<sup>32)</sup> 장시<sup>33)</sup>의 유통망을 중심으로 상무사 조직이 강화되었다. 그 강화의 결속과정에는 공문제와 이에 따른 잔치행사였다. 그만큼 보부상 공동체대동놀이의 으뜸이 공문제인 것이다. 예산군은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한 보부상놀이 연구용역을 통해 △예덕상무사의 형성과 변천 △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보부상재현놀이보존회)의 구성내용과 특징 등에 대한 학술적 고증을 마쳤다.<sup>34)</sup>

보부상 공문제(公文祭)는 보부상의 시조인 백달원과 역대 보부상 임원들의 위패와 보부상의 존립에 근거가 되는 완문, 선생안, 절목 등 공문을 모셔놓고 전 보부상단이 지내는 제사다. 조선 후기에, 보부상들이 총회를 열 때 상무사의 공문을 모셔놓고 올리던 행사였다.

31) <저산팔읍상무사의 공문제>《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연구보고서》, 예산군, 2013, 72-80쪽.

32) 이훈섭외, 《보부상 연구》, 보경문화사, 1990.

33) 오석민, <금강의 옛 포구와장시>, 《충남의 민속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10, 283쪽.

34) 《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연구보고서》, 예산군, 2013.

공문제 참여<sup>35)</sup>는 회원의 주요 의무 중 하나다. 총회, 기타 연회에 이유 없이 불참할 때 벌금 1냥(兩)을 내야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 신분상으로 미약한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조직을 강화하려는 필요에서였다. 보상단 운영을 위한 재정 관계를 보면, ① 관부에서 시장 세금 징수에 대한 특권을 받고, ② 요원들에게 급여한 신표(信標, 일명 驗標) 한 장의 대가로 3냥을 받았으며, ③ 총회 때의 연회비와 사제(祠祭) 때의 경비를 각 시장에서 임시 조달하였고, ④ 각종 금률 위반자에게서 징수한 벌금 등으로 요중 운영의 재원을 충당하였다.

저산팔읍(苧産八邑: 扶餘·定山·鴻山·林川·韓山·庇仁·藍浦·舒川 등 모시를 생산하는 여덟 읍)의 보부상단 가운데 보상회인 상무사우사(商務社右社)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 보면, 정기총회를 중점(中點) 또는 공사(公事)라고 하였다. 매년 음력 3월 3일부터 수일간 개최하며 모든 회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총회의 회의장은 일정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임원 선출이다. 전통적으로 해마다 열리는 보부상단의 총회를 일컫는 용어는 ‘공사(公事)’, ‘하체’ 이다. 총회일은 ‘공사일(公事日)’ 또는 ‘하체일’ 이라 부른다. 과정 자체가 민주적인 방식이다.<sup>36)</sup>

상무사총회 일자는 각 상단 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음력 3월경에 열리며, 1박 2일 정도가 걸린다. 해마다 이 기간에 적당한 날을 새로 잡기도 하고, 저산팔읍 상무사좌사는 3월 11일, 우사는 3월 13일이었다. 예덕상무사는 3월 그믐날 등으로 일자를 정해 놓고 지내기도 한다. 총회 및 공문제의 장소는 상단별로 또 시기별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보통 접장의 거주지(집이나 근방의 적당한 장소) 또는 접장이 속한 본방의 장터에서 열렸던 것이다.<sup>37)</sup>

장소성은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있다. 접장이 바뀌면 매해 총회 및 공문제의 장소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 또 김재련<sup>38)</sup>과 김대연<sup>39)</sup>에 따르면 동일한 장소에서 총회와 공문제를 거행하기도 하고, 가까운 곳이기는 하지만 총회와 공문제의 장소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sup>40)</sup>

35) <중외일보>, 1930. 1. 31.

36) 김재련(남, 84.) 제보 내용, 1990. 11. 26. 당시 교원리 가로공원과 남촌리 객사터 자료보관실 면담. 박철래(남, 73) 동행.

37) 황인철 제보와 사진,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38) 김재련(남, 84.) 제보 내용, 1990. 11. 26. 1950년대 사정 제보.

39) 김대연(남, 81.) 제보 내용, 2017. 4. 1. 도집사로 참여하여 공문제 정보 제보.

40) 홍산장시 목록.

태조 대왕 등국 후에／우리 생명 건져넷소  
영위영감 반수영감 듣잡시요／시재 영감 요중 영감／모시고서 드리 갑니다.  
오늘이 몇날인야／삼월 열나을 일이다.  
우리가 살면 몇 백년 사나／묵숨을 다하여 보은충성 다하세  
삼천 초목은 절머나 가는데／우리네 인간들은 왜이리 늑나요-상무사  
사가(社歌)<sup>41)</sup>

상무사에는 역대 보부상 반수와 접장 지도자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왔다. 상무사 조직 의례는 공문제로 표현되었다. 부여박물관에는 〈홍산상무사선생안〉 등 각종 보부상단 문서가 보존되어 있다.<sup>42)</sup> 상부상조와 신의규합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보부상 맥을 잇고 있다. 상무사에서도 제사를 올리며 보부상기를 앞세우고 주체인 임방 추대일에 상단축제를 벌인다.

고령과 덕산은 상무사기념관을 짓고 추모와 전통을 지켜 가자는 뜻을 지니고 있다. 보부상의 대제 의례와 보부상놀이에는 조직의 단결성과 구성원의 신뢰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공동동체민속 중 상거래의 공정한 실천과 장꾼들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공문제’의 형식과 절차는 2부 6마당으로 구성된다. 도입부는 조선보부상단의 행렬, 제2부는 조선보부상단의 제사, 제3부는 장터/장마당에서의 놀이가 중심이다.<sup>43)</sup> 이 의식과 놀이의 내용은 실제로는 조선보부상단에 고유했던 옛 의식의 재현과 시장에서의 상거래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각 마당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마당은 홍산상무사를 소개하기 위한 마당이다. 이어 옛 보부상단의 공문제의식과 행렬의 재현이 시도되는 둘째, 셋째, 넷째 마당이 이어진다. 이 중 둘째 마당에서 재현하는 공문제의 행렬과 ‘보부상의 노래’는 기록만 남은 채 사라져 버린, 저산팔읍 보부상에 고유했던 의식이다. 특히 보부상단이 행진하면서 부르는 ‘보부상의 노래’는 1979년 이후 사라졌던 것을 당시 채보 재구성된 악보를 근거로 하여 복원한 것이다. 셋째 마당은 공사로 불리는 제사의식, 넷째 마당은 공문제가 끝난 후의 여흥이 중심이다. 시장에서의 놀이와

41) 후렴구를 붙이는 뒤 각편이 옳다.

42) 사진자료 열람.

43) 유병덕, 〈홍산 보부상놀이의 유래 및 내용〉 글 비교.

장문은 다섯째 마당에서 시작해 여섯째 마당에서 끝난다. 마지막에 펼쳐지는 이 두 마당에서는 장터에서 장꾼을 부르는 각종 놀이에 옛 보부상단의 장문의식을 함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터의 활기와 우리 상인의 상도의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 놀이의 마지막에 상무사에 남아 전하는 ‘상업유희요’를 공연함으로써 이 놀이가 ‘홍산의 것’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렸다.

\* 공문제 노래 \* 최병헌, 이순용

1. 성수만세 성수만세／오늘장에 천냥이요  
아래장에도 천냥이요／한달육장 매장해도  
수천냥씩 재수봐요
2. 가는길에 만냥이요／오는길에 만냥이요  
소금장수 등짐장수／간곳마다 짹짹하네  
만세 --- 성수만세
3. 좌사우사 여러분／오고가는 험한길에  
솜수안녕 하옵시고／재수대통 하옵소서

짚신에 감발치고 패랭이 쓰고  
콩무니에 짚신차고 이고 지고  
이장 저장 뛰어가서  
장돌뱅이 동무들 만나 반기며  
이 소식 저 소식 묻고 듣고  
목소리 높이 고래고래 지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쳐가며  
돌도부장사(머리에 이고 다니는 장사)하고 해질 무렵  
손잡고 인사하고 돌아 서네  
다음날 저 장에서 다시보세  
-보령 〈장돌뱅이 노래〉

놀이는 계층과 직업,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전 구성원이 함께 즐기는 대동놀이로 꾸며졌다.

상인들에게는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순조로운 장사를 기원하고, 옛 상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상인의 충속을 접하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신명나는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되도록 서구 중심의 놀이를 대체할 전통상인의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보부상의 노래’, ‘공문제의 노래’를 되살리고, ‘싸구려타령’, ‘고령장타령’ 등을 삽입하거나 장터에서의 호객놀이를 포함시킨 것은 이 때문이다. 놀이는 또 전통을 재현함으로써 옛 상인의 얼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비중을 두었다. 구전되어 오던 사설과 옛 창곡은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일부 편곡하거나 고치기도 했다.

조직공동체 상무사는 전통 상인단체답게 이들의 조직과 규율을 통해 옛 상인의 전통과 상도의를 지켰다. 민주적 임원 선출과 축하 그리고 공문제 행사는 한국 상인문화정체성을 보여준다. 한일 합방을 전후한 시기 조선에 머물렀던 다케다 한시는 당시 공문제에서 보았던 조선보부상의 독특한 의식을 이렇게 적어 두었다.

부상들은 매년 한차례 팔도도두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전국부상대회를 열고 대연회를 마련하였다. 이때는 소위 수교문첩인 척어를 붉은 색 비단보자기에 싸서 지극히 정제된 의식을 행한다. 의식이 끝나면 재미있는 연희와 오락 등 볼거리를 만들어 함께 즐긴다.<sup>44)</sup>

보부상단은 이 의식을 자랑스럽게 여겨 매년 거행하였고, 실제로 1960년 대 중반까지 일부 지역-홍산, 임천-에 남아 있었다. ‘민중의 삶’을 강조하지만 제대로 된 ‘평민의식’을 접하기 힘든 오늘날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더욱이 보부상의 공문제는 우리가 흔히 접하던 농경의례가 아니라 상인의 의례, 조직행사라는 점이다.

‘홍산보부상놀이’는 저산팔읍상무사 상거래 전통 유지와 재래5일장 관련 놀이문화인데 고형과 전형의 요소가 있다. 전통놀이 중 상업문화 관련 상징적 놀이다. 장소성 곧 홍산면 시가지-장터-동현은 전통사회의 난장공간과 같은 동선을 이룬다. 홍산보부상놀이 3마당 전승과 공연화인데 임원 선출과 신차영감 행차, 보부상 공문

44) 원본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기록물.

제와 장문, 재담형 타령/전통연희와 지신밟기 공연 등이 그것이다.<sup>45)</sup>

보부상놀이의 대표적인 전승 지역은 충남 부여와 예산지역인데 각각 보부상들에 의해 직접 재현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상무우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업적을 기린 행상놀이를 구성하고 있다. 충남 홍성지방은 부여나 예산지방과 같이 상무우사를 중심으로 전승되던 놀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무엇보다 장터놀이가 강조되고 있다. 경북 고령지방이나 경남 창녕지방의 지신밟기는 계원집을 중심으로 농악을 앞세우면서 노래를 통해 재수대통을 빌어주는 마당굿이다. 주체는 상무우사로서 거리굿을 펼치면서 마을의 축제를 이끌고 있다. 강원도 춘성지방의 샘발 장터놀이는 장타령계 〈처녀풀이〉를 중심으로 호객행위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홍산장터와 관련된 대표적인 놀이가 홍산보부상놀이이다. 본래 보부상놀이는 보부상 집단이 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공문제, 연희의 뒤풀이 형태인 것이다. 총회 선거가 끝나고 거리축제로 줄타기, 난장, 농악놀이와 함께 향연을 베풀면서 시가행진을 거행한다. 과거 홍산 오일장날 남사당패가 소고와 춤, 줄타기, 노래 등을 묘사하여 흥을 돋구었는데, 흥에 겨운 등짐꾼, 보쌈꾼 등이 덩달아 어울렸다고 전해온다. 보부상놀이는 다른 집단민속놀이와 달리 장터문화를 지속시킨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부상놀이의 연행방식은 모의 상업행위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진룡 보부상의 증언에서는 보부상단 조직의 관행이었다고 한다. 보부상 집단은 모임을 가졌을 때 반드시 연회를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생존해 있는 보부상들도 총회가 끝나면 놀이마당을 통해 단결심을 한층 고조시켰다고 제보하고 있다. 놀이와 조직적인 삶의 밀접함은 다음 두 기록에서 볼 수 있다.

- 계원의 연회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볼기 10대를 치고 벌금 1냥을 물린다.〈예산임방 입의절목〉
- 연회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볼기 10대를 치고 벌금 1냥을 물린다.〈부의절목〉

45)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문화재청, 2010.

재현이라는 연출로 인해 수용 단위가 넓나들이 있다. 보부상 연회의 전승놀이가 놀이마당이라는 연행현장에서 재현되어 나타난 경우는 마당 단위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서낭당 굿놀이, 장터놀이, 사실놀이, 공문제와 상벌주기놀이, 뒤풀이로 구성된다.

서낭당 굿놀이는 집단 기원제의 성격을 띠면서 부녀자 중심의 놀이다. 장터놀이는 장사꾼이 물건을 직접 매매하면서 다양한 보부상 노래가 불려지는 마당이다. 아울러 난전놀이면서 〈장타령〉이 주로 불려진다. 모의놀이는 보부상들이 역사 속에서 활약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관련 설화가 다양하게 동원됨으로써 일종의 ‘사발통문놀이’로 연행한다.

공문제는 실제 보부상 집단이 행했던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뒤풀이는 오늘날 마을 곳의 난장놀이와 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보부상놀이는 집단조직을 바탕으로 단결력과 동료애를 가장 적극적으로 승화시킨 민속연회라고 할 수 있다. 상업민속권의 대동놀이인 것이다.<sup>46)</sup> 이런 점에서 장터의 흥겨운 분위기를 놀이마당으로 재현하는 보부상놀이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대체로 장사꾼의 삶을 놀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부여와 서천의 보부상놀이<sup>47)</sup>는 1979년 고 박계홍에 의해 고증되어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현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10,26사태로 연행하지 못했다. 이때 부여지방 상무사원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충남 저산팔구 보부상놀이는 보부상들의 소망실현을 위하여 당곳에서 상병단의 출동하기, 공문제, 공과에 대한 상벌하기로 진행된다. ‘홍산보부상놀이’는 조선보부상단에 고유했던 공문제 의식과 장터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던 보부상의 상행위를 하나로 엮어 ‘내포상인의 놀이’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놀이는 양반의 것이거나, 평민이 양반을 해학의 대상으로 삼는 놀이가 아니라, 조선조 평민의 일상을 그대로 놀이로 재현한 ‘상인의 놀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놀이의 내용은 보부상들의 상업목적을 기원하며, 집단의 안녕을 유희화하고 있다. 곧 재수가 대통하기를 신명에게 빌고, 자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요컨대 보부상놀이는 보부상 집단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의식을 놀이현장을 통해 축제화하고 있다. 서낭굿은 일종의 길거리굿인데 먼저 마을의 부녀

46)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186-231쪽.

47) 박계홍, 〈보부상놀이대본〉, 저산팔구상무사보존회, 1979.

자들이 중심이 되어 연행한다. 농악에 맞추어 보부상들의 재수대통과 무사안녕을 당신에게 기원하는 마당이다. 이어서 장사길에 나갈 보부상들은 서낭당에 도착하여 제각기 등짐과 봇짐을 놓고 곳거리 장단에 맞춰 서낭신에게 소망하는데 주로 재수대통을 기원하게 된다. 이들은 마을을 떠나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갖고서 각각 서로를 소개하기도 한다. 장사를 하는 동료로서 우애를 나눌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서낭굿은 장터<sup>48)</sup>에서 행하는 의식에 앞서 가정과 마을에 관련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터에 도착한 보부상들은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장짐을 펴고 <싸구려타령>을 부른다. 싸구려타령은 파는 물건에 따라 다양한 각편들로 대체되어 불린다. 장사꾼이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꾼은 장꾼을 불러 모으기 위해 재미있는 사설로 표현하고 있다.<sup>49)</sup> 이때 물건을 팔고 사는 과정에 구걸객이 장꾼들 사이에서 등장하여 이른바 장타령을 부른다. 이 장타령은 기존에 있어서 언급한 각설이타령과 상통하며, 구걸객은 하층민으로서 ‘각설이’를 말한다. “이 전 저 전을 다 버리고/ 아저씨 전으로 돌아와/ 오늘장에 재수는/ 천냥 만냥 재수요”를 서두로 한 숫자풀이를 연상하여 가창하고 있다. <옛타령>도 불릴 뿐만 아니라 권주가, 청춘가, 노랫가락 등이 주막의 주모들에 의해 불려짐에 따라 더욱 신명나는 장터마당을 이루게 된다.<sup>50)</sup>

이러한 흥겨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적의 침입을 알리는 통지문 낭독이 있게 된다. 통지문은 국가의 위기를 알리는 내용이다. 보부상들은 모두 뜻을 모아 상병단을 조직하여 출동한다. 병자호란 때 보부상들이 남한산성에 갇힌 왕과 군사들을 구했던 사실을 놀이화한 대목이다. 적을 격퇴시킨 다음에 보부상들은 보부상의 노래인 계화자 각편을 부르며 무사귀환하게 된다. 이 계화자 각편<sup>51)</sup>은 오랫동안 보부상 집단에 의해 불려진 대표적인 보부상 민요이다.

태조 대왕 등국 후에 우리 생명 건져냈소/계화 계화 계화자 종소

영위영감 반수영감 듣잡시요/계화 계화 계화자 종소

48) 별신제 요소, 1940년대 은산별신제 참고.

49) 이창식, <낙동강 유역 보부상 민속현상과 지역사회>, 《민속과 지역사회》, 민속원, 2007.

50) 이창식, 《한국의 유희민요》, 집문당, 1999, 148-149쪽.

51) 《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연구보고서》, 예산군, 2013.



시재 영감 요중 영감 모시고서 드리갑시다./계화 계화 계화자 종소

오늘이 몇날인야 삼월 열하룻날입니다./계화 계화 계화자 종소

우리가 살면 몇 백년 사나요//계화 계화 계화자 종소

목숨을 다하여 보은충성 다합시다/계화 계화 계화자 종소

삼천 초목은 젊어나가지만//계화 계화 계화자 종소

우리네 인생은 왜 이리 늙어만 가나요//계화 계화 계화자 종소<sup>52)</sup>

이어서 부녀자들이 미리 준비한 공문제를 올리게 되는데, 이 의식에서 공문제 노래를 부른다. 공문제 노래는 보부상의 안녕을 비는 내용이며, 자신들의 상업활동이 번창하기를 간구하는 의식요이기도 하다. 공문제의 절차는 영위장, 반수, 장무원이 도착하면 사원들이 일제히 절을 하게 되고, 집사는 ‘칙령’을 읽게 된다. 집사의 구령에 따라 영위장은 초헌, 반수는 아헌, 장무원은 종헌을 하게 된다. 제향의식이 끝나면 영위장은 보부상의 업적 설명과 사명 정신을 고양시키는 훈시를 하게 된다. 시상과 형벌 내리는 것도 이때하게 되는데, 상벌주기는 보부상 집단의 엄격한 통솔력을 강조하고, 집단 자체의 협동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곧 모범 보부상에게는 상을 주며 단체행동에서 이탈한 상인에게는 벌을 줌으로써 결속을 강화하는 모의 의례인 것이다.<sup>53)</sup>

마지막에는 대동과 여흥을 갖게 되는 바, 춤과 노래 및 음식 나눠먹기를 통해 뒤풀이 놀이를 한다. 약장수타령, 웅기타령, 옛타령, 떡타령, 비단타령, 짚신타령, 각설이타령 등이 전승되었다. 여러 가지 재담과 노래가 곁들여진 난전놀이로서 한바탕 신명나게 놀게 된다. 이때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장터에서 불려지던 타령계 민요이기 일쑤이고, 그 성격은 해학성을 지닌 오락유희요인 것이다. 따라서 보부상 놀이는 실제로 나타나는데, 다만 이곳 놀이는 ‘난전놀이’ 대목이 부각되어 집단놀이로서의 성격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팔았다. 그들의 이야기와 노래에는 비애감과 신명의 어울림이 동시에 있다. 어사용 민요처럼 신세타령의 역사적 뉘즈리가 있고, 장타령처럼 시대의 판을 주도하는 해학과 지혜가 녹아 있다. 이를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데에는 인문학 감각과 문화의 산

52) 김재련(남, 84.) 노래 유래 제보 내용, 1990. 11. 26-27, 《청금록》에도 올라있다고 하였다.

53) 이창식, 〈보부상 민요의 현장론적 분석〉, 《비교민속학》 7집, 비교민속학회, 1991, 〈보부상 놀이와 노래〉 민속학회 발표(1991. 4. 16. 국립민속박물관).

업 전략이 융합되어야 한다.

충남의 덕산지역 보부상놀이<sup>54)</sup>는 공문제 및 무당굿놀이,<sup>55)</sup> 죽방울놀이, 난전놀이,<sup>56)</sup> 사발통문 순으로 연계되고 있다.<sup>57)</sup> 첫째 마당은 공문제를 지내기 위해서 모이는 지소영감을 영접하러 가는 길놀이 대목이다. 둘째 마당인 난전놀이는 붓짐과 등짐을 내려놓고 장터에서 호객 선전하며 다양한 장타령을 부르는 대목이다. 소금전에서는 소금장수가 새우젓타령을 부른다. 이 경우 장타령은 상업노동요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물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내용의 장타령 노래들이 불릴 수 있는 것이다.<sup>58)</sup> 각설이타령은 재미와 장난을 더해 장꾼들을 즐겁게 하였다.

이때 각설이가 등장하여 각설이타령을 부름으로써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으흐흐 이놈이 이래봐도 정승판서 자제분으로 태어나서/팔도감사 마다하고 돈 한 톨에 팔려서 각설이로만 나섰네/ (후렴)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품바 잘한다.” 라고 부르면서 장꾼들의 시선을 끈다. 이 과정에서 행수가 장터의 도둑을 잡아 ‘멍석말이’를 시킨다. 긴장된 분위기에 옛장수가 등장하여 옛가위를 치며 옛장수타령을 불러 긴장된 분위기를 이완시킨다.

이어서 셋째 마당인 사발통문의 연행으로 넘어간다. 칙사에 의해 봉합봉투가 전달되자, 시접상이 봉투에서 사발통문을 꺼내 읽는다. 실제로 사발통문은 급통보의 비상연락 수단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부여의 보부상놀이와 같이 ‘태조’를 앞세워 국가에 보은해야 함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곧 북방의 청나라 군사가 침입하여 임금이 남한산성에 포위되었으니 군량미를 운반하여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자는 요지이다. 접장을 중심으로 한 도부꾼들은 나라를 위해 출병할 것을 다짐하고 ‘구국헌신’의 깃발을 앞세우고 출병한다.

출병 후에도 행수가 도둑을 다루는 대목을 통해 도부꾼이 보부상의 규율을 나타내는 장면도 있고, 선비의 돈을 훔친 선길장수가 장문을 당하는 장면도 연행한다. 중간에는 각설이타령이 불려지기도 하고, 장꾼들에게 보부상들의 규율과 체통을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 마지막에는 계화자라는 보부상 노래를 부르는데, 끝에 “얼시구 절시구 얼시구 좋다.”라는 후렴이 더 보태어진 것을 알 수 있다.

54) 《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연구보고서》, 예산군, 2013.

55) 서낭에 비손행위를 뒤풀이로 여흥을 즐기는 마당.

56) 예덕상무사 보부상난전놀이보존회는 내포보부상장터, 덕숭산단풍장터 등에서 공연한다.

57) 이창식, 《한국의 유희민요》, 집문당, 1999, 141쪽.

58) 동아방송, 《보부상놀이》, 1979. 12. 9. 방송.

보부상놀이에 삽입된 상벌주기에는 집단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결속의 차원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상무사의 규율집행 중 규율을 어기고 죄를 지은 보부상에게 첫째, 하얀 백지를 태워서 먹이기 둘째, 곤장으로 때리기 셋째,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명하기 등이 있었다. 이는 보부상 집단이 떠돌이로서 유량의식이 두드러진 처지이나,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이익사회의 성향을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sup>59)</sup>

공문제와 같은 제의도 사농공상이 엄격했던 당시의 사회제도에서 가장 하층으로 천대를 받았으나, 이러한 계층적 억압을 이런 의식자체를 통해 극복해 나가려했던 것이다. 이는 축제의 성격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승된 모습이다. 신분적으로 천시되었으나 애국을 표방하여, 사원간의 일치단결을 통한 자립경제를 확립하는데 힘썼던 것이다. 난전놀이에도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문맥에 내재되어 있다.

홍산 중심의 저산팔읍 상무사 퍼레이드 전통은 매우 값진 일면이 있다. 홍성을 비롯하여 6개 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무우사 단체도 민주적인 기명 투표를 통해 임원을 개선한 다음 시가행진을 했다. 시가행진은 부여나 예산의 보부상놀이에서의 길놀이와 일치하는데, 이때 줄타기, 난장, 농악놀이 등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장놀이에서 반드시 각설이가 등장하고 있듯이 이런 시가행진에 천민 예인 집단인 거사배, 도인, 각설이, 풍각쟁이도 동원된 듯하다. 이런 점에서 보부상들의 이동에 따라 유랑예인들도 상호공존하며 노랫가락, 연희 등의 구비전승물을 전파시켜 나갔으리라 추정된다. 장타령이나 각설이타령의 개방적이면서 유동적인 측면도 이렇게 문맥에 있어서 고정적인 체계보다 비고정적인 체계를 더 선호한 것에서 한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타령은 대부분의 각편들이 지역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장상황에 따라 사설이 대체되어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체놀이는 보부상들이 장돌림의 규율을 잡고 새 접장을 뽑을 때에 열리던 잔치 모임이다. 등짐장사꾼의 큰 잔치인 것이다. 주로 봄철에 하는 하체놀이에는 남사당, 화랭이들도 참가한다. 이때에 기생도 참여하고, 삼헌육각도 잡히며, 줄타기도 한다. 보부상의 집회에 놀이꾼으로 등장한 것은 그들의 예능적 인기에서 온 것이 화랭이는 당곳에도 참여하지만 재주와 음악이 소문나자 경사가 있는 집, 환갑집,

59) 유진룡(구술자료),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지 알아?》, 뿌리깊은나무, 1984, 40-44쪽.

집굿판 등에도 참가하지만 보부상의 잔치판이나 시장판에 등장하여 여흥을 보태주고 그 대가로 생계비와 놀이품값 일부를 받았다.

남사당패, 창극단을 받아들여 그들의 축제를 벌인 것이다. 보부상 집단은 예능 집단패에게 오락을 제공받는 대신에 물질적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일정하게 부담하였으리라 보여진다. 이 노래들은 축문의 형식이며 고정적인 체계속에 대상에 따라 부분적인 어휘나 구절만 대체되어 불리고 있다. 낙동강 유역<sup>60)</sup> 상무사의 지신밟기의 연행과는 다르다. 특정 의식 자체가 그들의 기강을 존속시키고, 생활속에서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갖게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처럼 보부상놀이든 집단의 의식은 무엇보다도 단결의 법통을 과시한 단체로서 보부상 집단은 자신들에게 혜택을 준 인물이나 집단을 통솔했던 ‘두령’들의 혼을 달래는 제의와, 그 제의에 따른 여흥을 통해 단결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보부상 놀이는 이러한 보부상 집단의 풍속이 재현된 상업유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보부상놀이는 보부상의 관습과 그들의 사유체계를 이행하는데 매우 긴요한 독자적 집단민속놀이이다.

장터의 문화를 이끌었던 보부상은 난장놀이를 통해 오락성을 드러내고, 이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을 강조한 의식성을 보이기도 한다. 전자는 오늘날 마을곳에서 보이는 난장의 신명나는 마당으로 계승되어 놀이문화로서 잔존하고 있다. 축제의 탈굿형식 마당은 강한 오락성을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번영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축제인데, 일정한 의식을 통한 이익사회의 결속을 가져다주는 조직체 문화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후자에 불려진 상징가는 군대와 같은 조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공문제에 불려진 상징노래는 군대와 같은 조직사회에서 집단결속의 사가로 계승되고 있다.

(접장 선출) 선거가 끝나면 푸짐하게 먹고 마시고 놀지. 시가 행렬도 갖구. 고 때는 보부상 아닌 사람덜도 꾸역꾸역 띄들어. 광대가 나와서 줄도 타구 죽방울 갖고 나와서 노는 사람도 있구 요지경얼 혼드는 사람도 있구 그러. 재밌을 게 다 구경덜 나와.(유진룡 증언)

60) 임경희, 《고령상무사》, 고령군, 2002.

보부상의 축제적 모임은 보부상놀이와 노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의례에 부합하여 목적성을 뚜렷하게 반영한 집단대동놀이로 전승된 것이다.<sup>61)</sup> 죽방울놀이는 중국도 관심-실제로 복원하여 축제화함-이 크다. 덕산보부상놀이<sup>62)</sup>와 홍산보부상놀이 재현과 축제화는 대동놀이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가 있다.

‘동무’라는 동료의식은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려졌으나 실상은 보부상 집단에서는 가장 친근한 동료 이름이었던 것이다. 역사 속에서 정치권에 관여하고 민족사운동에 연계하여 자신들의 긍지를 드높인 사실을 놀이마당에 부감시킴으로써 향유층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게 하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부상놀이의 연행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집단조직체로서의 보부상의 삶 곧 공문제 등을 확장하였는데 역사적, 사회적 맥락의 의미를 형상화한 집단공동체 대동놀이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보부상 집단은 철저한 정신적 혈연공동체-서양 길드와 다른 국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놀이와 노래 또한 이러한 의식이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보부상집단은 지역에 따라 운송수단의 따라 파는 물건에 따라 보부상단이 나뉘었다. 각각 가지는 총회의 특성이나 보부상단의 정신 상호간의 예의 등에서 차이가 난다. 각 보부상단마다 집회나 선거 후에 또는 단순히 친목을 다지기 위해 뒤풀이 형태인 연회를 가졌다. 각종 죽방울놀이, 기예, 줄타기, 춤, 노래 등으로 연회의 흥을 돋웠던 것으로 보아 보부상들은 놀이마당을 통해 신명과 단결심을 고조시켰다. 그들에게 단결심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양한 보부상놀이와 규율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sup>63)</sup>

공문제 의례 중심의 대동놀이를 강조하는 것이다. 공문제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복원과 전형 측면에서 값지다. 순수 장터문화 재현은 부수적이다. 보부상의 상행위에서 전개되었거나 일반의 장사꾼들의 상행위, 일반 장꾼들로부터 파생된 장터 문화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공문제와 장터 민속의 결합방식인데 공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일반 장꾼과 장사꾼의 문화적 특징을 살리는 민속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홍산보부상놀이’는 저산팔읍상무사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업 관련 전래놀이이다. 그 가치는 대동, 동무, 여흥의 공동체 신명풀이에 있다. 일찍 보전되어야 할 공공자

61)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199-214쪽.

62) 《예덕상무사 보부상놀이 연구보고서》, 예산군, 2013.

63) 울진문화원, 《12령바지계꾼놀이》, 2005.

산이다. 내포권 장시, 장터 문화의 유통과 실상을 대변하는 난장놀이이다. 특히 공문 제 의례, 권점(선거), 여흥잔치, 난전 호객 축제성, 역사적 사건 관련 재현과 민선 요소는 값지다.<sup>64)</sup> 보부상유산 중 ‘홍산보부상놀이’ 는 무형문화로서 반드시 보존과 활용의 전략이 필요하고, 《청금록》 등 기록유산과 함께 유지해야 한다.

‘홍산보부상놀이’ 는 상거래형 대동놀이이다. 놀이 활용은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보부상이 일제강점기의 말살 정책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퇴락한 데에 따른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전통문화예술로의 진전을 보일 수 있다. 홍성, 예산, 부여 등 내포지역 내 보부상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5일 전통시장을 활용한 놀이마당을 키울 수 있다. ‘보부상 장마당 놀이’ 를 융복합형 특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보부상포럼이 지속되어야 한다. 제정 지원은 2011년 제정된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참조된다.

보부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옛 보부상들이 다녔던 저갓거리 풍경을 재현하여 다양한 먹을거리와 공예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맛점하자!(맛있게 점심하자) “엽전도시락”, “토우체험”, “복식체험”, “떡메치기 체험”, “팔씨름 시합”, 보부상 전통놀이인 “죽방울 놀이”, 전통놀이인 “유객주” 체험, 전통놀이 “죽방울놀이” 체험, 구루무동동, 뽕튀기 등 옛 장터 풍경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체험프로그램을 완수하면 기념품을 증정하고 홍산시장 상인사진 특별전시와 중앙시장 소개, 행사체험들을 안내하여 홍산시장 곳곳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한다. <표 1>처럼 확장해야 한다.

보부상의 실제 조사담론<sup>65)</sup>은 ‘학제간 융합학’ 으로 인식하고 본격 보부상지를 만들어야 한다. 보부상 연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성취-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소스 영역-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문헌자료와 구술자료 조사 영역에서도 장소성과 지역성을 우선해야 한다. 앞서 논의에서 밝힌 대로 보부상의 다채로운 경험담 조사도 섬세한 조사 면담 전략이 설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공공 가치와 공동성의 목표에 문제의식이 있는 구술문화 조사야말로 지역학에 도움이 된다. 원형, 전형, 변형을 전제하되 구비유적, 구비공동체, 구비공감에 대한 인식과 탐색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융합적 담론을 강조하면서도 학문 영역 간의 배타적 편파적 구술조사 논의는 마땅하지 않다.<sup>66)</sup>

64)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278-283쪽.

65) 《홍산보부상민속지》 발간 필요성.

보부상 연구물을 지역주민이 향유해야 할 공공문화, 정신적 자원이라 전제해야 한다. 연구 결과물이 학자들의 손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자료나 콘텐츠로 제공되어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다면,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가 확대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학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방향은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과 연계되는데, 지역주민 공동체가 이미 기존에 접근하여 익숙한 문화시설의 강의, 탐방, 체험, 학습 프로그램 활용하는 방법, 모든 지역주민들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작은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학의 출판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종합대학, 전문대학, 시민자치대학,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모색될 수 있다. 국제경쟁력을 고려하면, 보부상 상거래 지식을 동원한 개발 영역과 지속가능성 분야가 성공한다.

보부상촌 등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 정책 추진에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보부상 전통의 지역사회 소통과 접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바뀌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보부상문화사업은 도지사, 시군 단체장들의 인문학 마인드가 바뀌어야 지역 기여도가 달라진다. 개발 논리의 역기능도 유의해야 한다. 보부상포럼 형태로 관련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모여 이 방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각 연구지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포럼에서는 보부상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하여 지역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역문화원형 차원에서 실사구시형 연구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보부상 문화관광산업을 선택하여 추진과정과 성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보부상유산의 역할과 가치 및 연구방향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보부상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인 상인이었지만 끈임 없는 조직망 구축과 정보력 그리고 무엇보다 대동단결하려는 정신으로 경제 활성화부터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역특산업과 연계하여 보부상 공공성 프로그램 개발이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보부상 브랜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정을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모순 현상을 깊이 논의해야 마땅하다. 충남 보부상유산에 대한 탐색 방향과 문제

66) 보부상놀이 온라인 인벤토리와 ICHPEDIA를 고려한 공공자원 인식과 미래공유 사고로 열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점을 짚어야 한다. 지역문화예술계 종사자들 역시 해법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이 연계하여 빅킬러콘텐츠 개발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타지역에도 보부상의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소설 〈객주〉<sup>67)</sup>가 보부상 테마파크로 태어나고 있다. 봉평에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문학공원이 되었다. 최근 제주도 거상 김만덕이라는 드라마가 소소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붙잡아 전시관이 마련되고 있다. 김만덕은 조선후기 관기 출신의 여성이라는 악조건을 이겨내고 상인으로 크게 돈을 벌어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구제하고 나아가 정조에게 벼슬까지 받아 출신지인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그녀가 죽어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책뿐만 아니라 드라마에까지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김만덕이 상인의 도를 행한 여성 거상(巨商)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다. 그녀는 진정한 상인으로서의 상도(商道)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변하지 않는 도리인 상도(常道)를 지켰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또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의 본성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다 공감하며 시공을 떠나 변치 않는 오랜 진리가 있다. 그 진리의 바탕은 바로 인간애이다. 김만덕 또한 이 진리를 실천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베풀었던 따뜻한 인정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물콘텐츠가 가지는 최고의 가치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이러한 인물콘텐츠의 창작을 발휘할 수 있는 관련 소재가 상업문화유산 곁에 잠들어 있다. 바로 보부상 유통과 이야기자산이다. 김만덕이나 임상옥과는 또 달리 상인의 색다른 면모를 보여 줄 것이다. 《객주》와 장사의 신 드라마가 그러하듯이 보부상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보부상의 원형 콘텐츠창작(OSMU) 개발은 시의성과 미래성이 있고 물길, 옛길, 모시길, 소금길, 돈길, 고갯길, 굴비길 등의 이미지로 적절한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이다. 내포권 보부상도 내포권 상거래캐릭터의 핵심이다. 저산팔읍 보부상 관련하여 다양한 유무형의 상업민속유산이 남아 있다. 홍산상무사의 전통과 상도(商道)는 오래된 미래임에는 틀림없다. 전통상인, 한상의 축제한마당이 될 수 있다. ‘보부상의 난전놀이’, ‘공문제의 노

67) 김주영, 《객주》(전 9권)6권, 문이당, 1982, 66-99쪽.



래’를 되살리고, ‘짜구려타령’, ‘고령장타령’ 등을 삽입하거나 장터에서의 호객 놀이도 의미가 있다.<sup>68)</sup> 전통놀이를 재현함으로써 옛 상인의 대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다.

보부상놀이는 부분적인 한계가 있으나, '2016 홍산상무사 공문제 및 보부상놀이 장시축제'로 선보여 주목되었다. 시장 속의 현장성과 전승복원성은 강점이다. 무형 문화유산 지정을 통해 보부상 전통을 복원과 재현을 지속화하는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부상유산의 구성 체계화가 필요하다. 보부상유산은 무형문화재로 가치가 있고 인류무형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올릴 필요가 있다. 그 과 정도 매우 유익하다. 내포문화권에서 아직 남아있는 연고지역 보부상의 지역적 국면과 역사적 국면을 상생시켜 가되 ‘공공문화’로서 보부상놀이의 현재성을 강조해야 한다. 지역의 연구자들 간의 세대융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이 방면 전승자 교육과 실천도 주요화두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보부상의 브랜드를 위해서는 대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회고적 경향보다는 미래적 가치, 미래 마을과 시장, 미래공동체 등 미래 정체 성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승 패러다임 확보가 중요하다. 부여지역의 민속유산인 홍산상무사 보부상놀이의 문화재 지정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지역사회의 총 의를 모아 문화재 지정을 이뤄내야 한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조선시대 건국 이래 꾸준히 발전한 보부상은 마을 곳곳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 하는 물자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홍산 보부상은 저산팔읍 상거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발전하였다. 1980년대까지 저산팔읍상무사 대표이사(영위) 김재련의 보부상 활동(전국에서 가장 최근까지 보부상 활동기록) - 공문제, 한식제 등이 있다. 1979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851년 이래 홍산상무사는 그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다. 홍산시장 자체가 살아있는 보부상박물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홍산상무사 보부상놀이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필수조건은 크게 고증보고서, 보부상놀이의 적절성, 지자체의 의지와 공연단체 역량 등 세 가지다. 필수조건 가운데 지금까지 고증과 보부상놀이의 적절성, 지자체의 의지는 만족을 시키고 있는 것으

68) '보부상유산' 프로젝트는 보부상 유네스코 등재 잠재목록(기록을 포함한 복합유산) 검토 일환임.

로 보인다. 홍산상무사 보부상놀이는 공문제를 중심으로 보부상의 전통을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고, 절차와 구성내용 면에서 전통에 기반한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문화·민속적 가치가 높다.

상무사는 저산팔읍을 순차적으로 장날을 따라 1개의 상권망을 형성하고 있는 행상단이다. 이들 조합은 그들 중에서 선출된 수령에 의하여 지휘되고, 회원들은 일정한 신호로써 서로 알리며, 필요할 때에는 동료에게 조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망시에 조합의 부담으로 매장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요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조직은 상업을 목적으로 한 이익공동체적인 상인단체이지만 그들의 내부조직을 통한 행동규제를 살펴보면 혈연 공동체적이며 정신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상무사우사와 상무사좌사는 그 임원을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 뽑았다. 총회는 중점(中點), 공사(公事)라고 하며, 우사는 매년 음력 3월 13일부터, 좌사는 매년 3월 10일부터 총회를 열었는데, 실제 총회에는 모든 회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할 당위성이 있었다.

재래 장터는 단순히 물품만이 교역되던 장소는 아니었다. 장터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교의 장이었고, 각종 소식이 교환되는 정보의 장이었고, 연희와 놀이가 제공되는 축제의 장이었다. 전통사회에서 홍산은 바로 관아 동헌 중심과 함께 이러한 교역, 사교, 정보, 유희난장(遊戱亂場)의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었던 활기에 찬 도시였다. 난장이란 본디 관용구로 쓰이는 말이다. ‘난장을 치다’, ‘장이 서다’의 말은 함부로 마구 떠든다는 의미이다. 난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를 보는 마당에서 선비들이 질서 없이 들끓어 뒤죽박죽이 된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현대에 난장(亂場)은 한자표기를 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로써 난장(亂場)의 경제적 의미의 ‘난장(-場)’의 어원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이때 난장(-場)은 5일장 등 정기장터에서 장날을 지나고도 며칠 더 서있는 장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장(場)이 문을 닫았는데도 새로이 ‘난’ 장(場)을 의미한다. 순수 우리말 ‘난’과 ‘장(場)’이 합쳐진 난장(-場)의 개념이 정기장터가 쇠퇴한 오늘날에는 정기장이 아닌 비정기적인 장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장터의 북적거림과 파고 사는 사람들의 어지러운 분위기 탓에 그 뜻은 국가의 정식 허락을 받지 않고 벌였던 난전(亂塵)과 같은 맥락에서 비정기적인 장(場)의 개념이 난장(亂場)으로 혼용되는 것이다.

난장의 양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축제에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제’, 중세 유럽의 ‘바보제’, 영광 법성포 단오제, 경산 자인 단오제, 강릉 등의 ‘단오제’ 처럼 고단한 일상을 잠시 잊고서 삶의 회포를 풀 수 있는 ‘탈일상’을 꿈꾸는 모습-대국성, 대동성-으로 나타난다. 이들 축제의 대부분은 한국의 축제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특징과 도교적 특징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바보제’에서 다른 ‘신화’와 ‘환상’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탈일상의 난장 개념과 같다. 난장성은 유독 한국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고대 축제의 양상으로써 다양한 원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난장이 무속적 영향 아래 자유분방성과 같은 민족성향과 맥을 함께 하며, 난장성을 기본으로 한 신명풀이연극인 전통연희양식이 일반 민들의 삶의 가치와 함께 성장해 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난장성을 가지는 신명풀이 연희-장시서는 장터, 난장 트는 장마당-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장시의 전통 지속과 보부상놀이의 전승과 맞물려 있다.

전국 6곳 보부상유품 중 가장 먼저 중요민속문화재 제 30호(1973. 7. 16.)로 지정되어 그 동안 국립부여박물관수장고에 보관되었던 김재련의 귀중한 유품 일부를 묘소가 있는 홍산면 무정리로 후손인 김삼현이 가지고 가서 생존한 유일한 보부상 도집사 김대연옹(83세)-도집사 출신-을 초헌관으로 모시고 보존회 임원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유제를 모셨다. 그 동안 후손인 김삼현은 물론 학자들도 보부상유품을 보지 못해 연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최근 김삼현의 노력과 배려로 국립부여박물관 수장고 유품을 학자와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충남연구원으로 이관 본격 연구가 시작되었다.

보부상문건의 집중적인 연구와 보부상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전승 맥락화를 위해서는 행사중심에서 벗어나 생존에 계신 마지막 도집사 김대연 등을 비롯해서 이들을 채록하고 새로운 증언과 유품들을 찾는 등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에서 누락된 유품의 추가 지정도 필요하다. 홍산동헌 주무대에서는 행사의 핵심 공문제 역대 보부상 임원들의 명단 청금록 원본을 포함해 지금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신표 등 수점의 유품을 모셔놓고 제를 올렸다. 공문제라 하면 공감이가 가는 용어는 아니다. 공문제는 총회의 존립 근거로 공문 제사 봉행의 가치가 있다. 공문제에서는 복식과 기물 등은 문헌과 구술을 참고해 최대한 옛 원

형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70년대 보부상 조직, 1979년 놀이 연출 이후 원로 보부상, 그 후손 자녀들, 보존회 회원 등이 보부상유산에 대해 동헌, 시가지, 장터, 연고 무덤, 보부상길을 연계하여 5일 재래장과 8읍 상무사 전통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한편 십이령을 넘나들며 울진과 봉화 지역의 장시를 장악하였던 보부상이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퇴조하자 그 역할을 대신한 대표적인 행상단이 선질꾼이다.<sup>69)</sup> 지역 특산물과 곡물·어류를 조선 후기 지방 장시의 발달과 교통로의 확보로 울진과 봉화에서는 십이령 길을 통하여 물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류는 5일장 형태로 운영되던 장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십이령 제당의 명칭을 통하여 당시 보부상이나 이후 선질꾼들의 신앙 처소로서의 기능, 그리고 세상을 뜬 보부상과 선질꾼들을 위한 재사(齋舍) 기능을 함께 하였다. 원흥주등육군상무우사 회원들은 매년 한식날에 홍도원에서 치루어지는 제의에 참여하여 세상을 뜬 보부상들을 기리는 것과 다르다.

“미역 소금 어물 지고 춘양장은 언제가노/ 대마 담배 콩을 지고 울진장을 언제가노/ 반 평생을 넘던 고개 이 고개를 넘는구나/ 서울가는 선비들도 이 고개를 쉬어 넘고/ 오고 가는 원님들도 이 고개를 자고 넘네/ 꼬불꼬불 열 두 고개 조물주도 야속하다/ 가노 가노 언제 가노 열두 고개 언제 가노/ [후렴] 시그라기 우는 고개 내 고개를 언제 가노”

이 노래를 보면 흥부장이나 울진장에서 미역·소금·어물을 지고 십이령을 넘었으며, 춘양장을 비롯한 영 너머에서는 대마·담배·콩 등을 지고 흥부장이나 울진장으로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장시가 개설되면서 거래되었던 주요 품목이 지역 특산물보다는 곡물·면포·마포가 중심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울진군 북면 해안 지방에서 생산된 미역과 어물을 십이령을 거쳐 경상도 내륙 지방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69)안동대박물관, 《울진 12령 넘나든 선질꾼들의 삶과 문화-바지개꾼놀이》, 울진문화원, 2005 : 이창식, 〈보부상의 실체와 전개〉, 《가노가노 언제가노》, 울진문화원, 2010, 42-63쪽, 2018봉화 보부상 마당놀이 -보부상 마당놀이 순서-첫째마당:보부상 행렬 및 십이령 타령둘째마당:장마당과 장타령 셋째마당:지계상여놀이 넷째마당:주모마당 다섯째마당: 청야칭칭나네 (대동놀이) -보부상 마당놀이 단원

이처럼 보부상 연고 지역을 중심으로 무형유산이 복원, 재현 전승되고 있다. 결국 보부상 관련 무형유산의 발굴을 통한 보부상 조사와 연구의 집중화, 보부상 관련 구비전승유산의 전승단체 활성화, 보부상 관련 오일장유산의 관리 방안 모색화, 보부상 관련 다양한 상거래유산의 보전화, 보부상 의례와 놀이의 축제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승단체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이러한 유산의 완벽한 보존이라는 공공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가치 공유도 절실하다.

한국 보부상의 문화적 상징성은 생업조직의 관행과 관련된 두레 공동체만큼 상거래민속의 대표 사회공동 조직체이다. 무엇보다 보부상의 공공 문화 요소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가야 할 것이다. 보부상 관련 유품에 대한 한국내에서의 문화재적 가치는 국가 및 지방문화재 등의 지정으로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청금록(靑衿錄)』 등 기록의 공공성과 보부상놀이 등 무형의 독자성이 널리 부각되지 못하였다. 보부상의 상업공동체 조직 전통과 여기에 파생된 결속형 공문제(公文祭) 의례와 잔치형 놀이 등은 한국 공동체 민속의 대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매우 값지다.

#### 4. 보부상의 정체성과 미래

한국 보부상의 문화적 상징성은 생업조직 관행과 관련된 두레 공동체만큼 상거래문화의 대표 공동 조직체이다. 보부상의 공공 정신소를 함께 공유해 가야 할 것이다. 보부상 관련 유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문화재적 가치는 국가 및 지방문화재 등의 지정으로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기록의 공공성과 무형의 독자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다.<sup>70)</sup> 보부상의 조직 전통과 여기에 파생된 결속형 공문제 의례와 잔치형 놀이 등은 한국 공동체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은 서양 길드 조직과 다른 공동체 구성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 기록 자체가 민주적 협력적 활동을 항목별로 살필 수 있다. 보부상 기록유산의 가치는 인적 조직망 속에서 유통의 상부상조, 상행위의 동무의식, 목적에 부합하는 의무이행 등을 세밀하게 기록한 점이다. 보부상 관련 무형유산은 공문제를 통한 결

70) 조재곤, 〈보부상 문서의 운영체계와 활용방안〉, 《한국근대사연구》 23집, 한국근대사학회, 2002.

속 도모, 보부상놀이를 통한 상거래(商去來) 활성화와 오일장 축제지향을 보인 점이다. 결국 보부상 민속 체계화는 지속적인 전승력 강화 차원에서 보부상보존회의 포럼과 전통오일장 연계를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특점을 살려 지역 중심의 오일장과 묶어 문화유산의 등재와 아울러 미래지향적 개발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보부상 항목은 해체와 소멸을 거듭하였다. 보부상의 문화적 가치에 비해 유무형문화유산 지정 등 지역 지속화 측면에서 소홀히 하였다. 그나마 일부 보부상 기록자료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다행이다. 재래장 오일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부상놀이의 축제화, 공연화, 추가 재현화, 실천화가 필요하다. 특히 오일장 전통 연계를 통한 시장축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전승단체 조직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보부상유산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하고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잠정목록-기록이든 무형이든 긴급종목으로 인식과 합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부상 ‘공공민속’의 대동성과 장시성(場市性)에 대한 전승력을 거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의 세계적 가치 발굴,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을 통한 보부상 연구의 세밀화,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의 관리 방안 모색, 보부상 관련 다양한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전, 보부상 의례와 놀이의 무형유산(아리랑, 김장문화처럼 인류무형유산의 상징으로서 등재 준비) 지정, 보부상촌 등의 활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 부여뿐만 중앙정부,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부상 관련 단체, 박물관, 학계와 시민 등 관련자들이 유산의 완벽한 보존과 신청서 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

보부상놀이는 조직 속에서 역사적 전통이 있는 유품과 ‘공문제’를 중심으로 보부상의 전통, 그리고 장터풍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보부상의 전통을 비교적 적극 재현하고 있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급속히 사라져 간 보부상 관련 무형문화유산이란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부여지역 보부상놀이는 1970년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계승되기 시작한 이후-박계홍 등 관심, 가교비<sup>71)</sup> 등 역사성 확대 정리- 그 절차와 구성 등 내용 면에서 여러 차례 변화해 왔지만 전통에 기반한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보부상놀이의 역사적 가치는 공문제의 정

71)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118호/1984. 5. 17. 지정,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상기리, 내용 ○○○施主僧敬特/化主劉金候/○○芻山/○○印○○王幼○○任雲

체성에 있다. 예산지역 전승단체의 의지와 지자체 지원도 긍정적이다.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 지정 등과 같은 전승을 위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학술적 심화 연구와 관심도 병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원은 보존 지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일장과 장터의 기반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전통문화의 새로운 창조라는 측면에서 전통문화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조사·연구하여 올바르게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보부상의 의례와 놀이에 대한 원형의 고증 작업과 함께 재현이 지속되어야 한다. 옛 보부상들 구술자료 등 보부상 민속지 간행이 절실하다. 문헌필사자료와 현지 주민들의 구전자료를 동시에 활용함도 당연하다.

보부상 관련 의례와 놀이의 민속학적 의의는 보부상 공동체의 대동놀이의 민속성에 있다. 충남지역 타 민속놀이의 연출성과 문화재 정착성을 사례로 올바른 전승맥락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보부상놀이는 오랜 기간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절차와 내용이 풍부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일부 고증이 미약한 측면은 과장 없이 단계적으로 수정해야 마땅하다. 전승단체 곧 보부상 협력조직과 보존회 구성원들의 단합과 의지가 중요하다. 보존회 차원에서 복합형 전시관 확보와 보부상 전승력 강화 포럼은 지속되어야 한다. 구술자료 고증과 보부상놀이의 적절성, 지자체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보부상유산 상거래콘텐츠는 OSMU 전략으로 동시다발성, 고부가치성, 쌍방소통성 차원<sup>72)</sup>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오일장 보존 가치와 병행하여 실용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전통맥락 여건에 부합하는 보부상형 사회적 기업과 브랜드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관련 보부상보존회는 부여군, 홍성시, 예산군 등 연고 지역이 긴밀히 상생화와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보부상유산 활성화 국면을 고려하여 보부상 민속 체계화는 지속적인 전승력 강화 차원에서 보부상보존회의 포럼을 추진해야 한다. 보부상유산의 전형 확보사업, 보부상 이미지 소통 교육사업, 보부상 지역 브랜드 강화사업 등이 그것이다.

보부상유산에 대한 총괄 아카이브를 위한 DB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부상은 19세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비되었기에 지역별로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들이 산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규모가 “성시(盛時)에는 13도 지부 920여사(社)에 달하고

72) 국립민속박물관, 《보부상 다시 길을 나서다》, 2010, 기획전 목적 참고.

상단의 가입자 수도 1~2백 만 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였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 현재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이 부여군을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강원도 일대-필사 자료 등 흩어져 있음-에서 발굴되었지만, 이외의 지역에서도 발굴될 가능성이 있기에, 부여군의 부여홍산임천 보부상 관련 기록유산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천지역 보부상의 문화적 정체성은 포구 객주, 경강상인 강통의 상거래민속과 연계된 사회공동 조직체의 활동에 있었다. 보부상의 상업공동체 조직 전통과 개항장 요소를 지속적으로 장악하면서도 객주집단 영향권에 점차 종속되었다. 다만 타 지역보다 5일장 관련 유품, 유적이 적다. 보부상 관련 유품유산-보부상 인상(仁商)의 ‘의리’와 ‘짚물’ 정신-의미부여에는 이른바 인천객주 내에서의 상업사적 가치가 있다. 『인천 영공원(領公員)』(1903) 등 보고서의 활동성과 당시 관에 대한 통행건의성 등을 보여주는 것은 있으나 지속적 조직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형편이다.



##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부보상 다시 길을 나서다》, 2010.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문화재청, 2010.  
문화부, 《한국의 민속예술》, 1992.  
문화재관리국 편, 《저산팔구상무우사유품》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1980.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문화재청, 2005.  
문정창, 《조선의 시장》, 1941.  
박계홍, 〈보부상놀이대본〉, 저산팔구상무사보존회, 1979.  
박원선, 《부보상》, 한국연구원, 1965.  
유진룡(구술자료),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린지 알어?》, 뿌리깊은나무, 1984.  
윤규상, 《예덕상무사》, 1997.  
이광규, 《보부상》, 문화재관리국, 1969.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이창식, 〈낙동강 유역 보부상 민속현상과 지역사회〉, 《민속과 지역사회》, 민속원, 2007.  
이창식, 〈보부상 민요의 현장론적 분석〉, 《비교민속학》 7집, 비교민속학회, 1991.  
이창식, 〈보부상의 실체와 전개〉, 《가노가노 언제가노》, 울진문화원, 2010.  
이창식, 《익살과 재치의 구연원리: 재담학》, 민속원, 2016.  
이창식 외, 《부여홍산임천보부상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부여군, 2018.  
임경희, 《고령상무사》, 고령군, 2002.  
임경희, 《경상도에서 조선의 보부상을 만나다》, 민속원, 2014.  
임동권 편, 《보부상자료집》 천지인 3 권, 민속원, 1986.  
조병찬, 《한국시장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조영준, <농촌시장에서의 상인단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  
조재곤, 《보부상-근대변혁기의 상인》, 서울대출판부, 2003.  
조재곤, 《한국근대사회와 보부상》, 해안, 2001.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웅진, 1992.  
정승모, 〈호서지역 보부상단의 조직과 활동〉, 《문화재대관》, 문화재청, 2005.  
안동대박물관, 《울진12령 넘나든 선질꾼들의 삶과 문화-바지개꾼 놀이》, 울진문화원, 2005.



# 경강상인, 조선의 물자를 거머쥐다

고동환 (KAIST)



# 경강상인(京江商人), 조선의 물자를 거머쥐다

고동환 (KAIST)

## 1. 머리말

경강은 총길이 514km인 한강중 한성부가 주관하는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경강은 조선후기 전국 해상, 수상교통의 중심지였다. 특히 17세기 후반 이후 서울의 상업도시로의 발달에는 경강의 비중이 대단히 컸다. 서울과 경강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경강은 전국 해상, 수상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큰 변화를 겪었다.

## 2. 한강지역 상업발달의 양상

### 1) 전국적 해운과 수운중심지로의 성장

경강은 모든 조운의 집결지였다는 점, 서울과 삼남지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였다는 점, 그리고 각종 어물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상업지대로 발전하였다. 그중에서도 경강의 상업발전을 추동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해상과 수상교통의 중심지였다는 점이었다.

경강은 전국 해로와 수로가 두루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수운으로는 남한강을 따라서 충주까지, 북한강으로 춘천까지, 임진강으로 연천까지 통하였다. 해운으로도 삼남지역과 해서, 관서지역만이 아니라 영남 남해안, 그리고 관북의 동해안까지 연

결되었다. 특히 수운으로 통하는 지역과는 경강상선이 외상으로 거래를 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18세기 중엽 이증환이 쓴 『택리지』에는 경강을 ‘해협을 통하는 이익을 좌우하며, 우리나라 선운의 이익을 도맡는 곳으로서 이익을 노리어 부자가 되는 자가 가장 많은 곳’ 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강이 전국적 해운중심지로 성장하는 데는 경강이라는 지리적 잇점과 더불어 경강선인(京江船人)들의 조선술과 항해술에 힘입은 바가 컸다. 경강선인들은 뛰어난 항해술과 조선술로 항해에 많은 장애들이 제거하였다. 이로 인해 경강은 전국 해운과 수운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경강은 미곡유통의 중심지였다. 18세기 후반 서울인구 20만명의 1년 미곡소비량을 100만석으로 추산된다. 20여만석은 사대부들의 외방 전토에서 수확하는 추수곡으로, 60만여석은 미곡상인에 의해 조달되었고, 나머지 20만여석은 전국에서 서울로 운송되는 조세곡 30만여석에서 충당되었다.

이들 곡물들은 모두 경강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경강에 집하되는 미곡을 ‘강상미(江上米)’ 또는 ‘강미(江米)’ 라고 불렀다. 강미는 전국 미곡가격의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다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 서울지역보다 미가가 비싸면 경강의 무곡상(貿穀商)들은 남부지역에서 올라온 미곡을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했다가 흉년이 심한 지역으로 다시 내려 보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그 양은 강미의 1/3에 달할 정도였다. 경강은 전국적으로 미곡가격을 조절하는 중심시장의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 2) 경강 상업지역의 확대

18세기이후 경강지역의 상업발달로 인하여 나타나는 변화 중 제일 먼저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경강을 부르는 명칭의 변화였다. 사람들은 경강(京江)을 주요 중심지를 근거로 하여 삼강(三江), 오강(五江), 팔강(八江)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18세기 이전에는 삼강으로 불렸지만, 18세기 중엽에는 오강으로, 18세기 후반에는 팔강이라고 불리웠다.

삼강은 한강, 용산강, 서강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남산 남쪽일대에서 노량까지를 한강, 그 서쪽에서 마포까지를 용산강, 마포 서쪽에서 양화진까지의 서강을 합하여 부르는 명칭이었다. 삼강은 명실상부한 경강수운의 중심지로서 조세곡 운송의 거점

이였음과 더불어 서울외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오강은 한강, 서강, 마포, 용산, 망원합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며, 팔강은 한강, 두모포, 뚝섬, 서빙고, 용산, 서강, 마포, 망원합정지역을 지칭하였다.

이와 같은 경강의 명칭변화에서 우리는 경강의 상업중심지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한강이 세곡집하와 나루기능이 중심이었던 시대에 가장 일찍 발전했던 한강, 용산, 서강을 중심으로 하여 3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서울이 상업도시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경강변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강이 새로운 상업중심지로 변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곡집하와 나루기능을 하는 용산보다도 전국적 상품유통의 중심지로 마포가 성장하였다. 또한 망원합정지역도 새로운 상업중심지로 발달함에 따라 오강(五江)으로 명칭이 변한 것으로 이해된다. 18세기 후반에는 경강포구의 상업이 한층 더 발전하여 상업 중심지가 8곳으로 늘어나면서 명칭 또한 8강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경강은 또한 8강으로 나뉘는 것만이 아니라 조류의 도달지점을 기준으로 수상(水上)지역과 수하(水下)지역으로 구분된다. 수상지역은 조류가 통하지 않은 지역이며, 수하지역은 바다에서 조류가 올라오는 최상류지점까지를 가리켰다.

수상, 수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도 각기 달랐다. 수상선은 암초가 많고 물살이 빠른 지역을 운항해야 했으므로 폭이 좁고 길었으며, 수하선은 풍량이 많은 바다를 항해해야 했으므로 밑바닥이 넓고, 길이가 수상선에 비해 짧았다.

경강의 수상과 수하지역으로의 분할은 상권에도 관련되고 있다. 경강의 객주나 여객들도 윗강 여객, 아랫강 여객으로 구분되었는데, 윗강 여객은 서빙고, 두모포, 뚝섬에서, 아랫강 여객은 서강, 마포, 용산등에서 활동하였다. 이는 경강이 용산을 경계로 수상, 수하지역으로 나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상과 수하를 구분하는 경계는 시기에 따라 달랐다. 한강의 오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점차 조류가 올라오는 지점이 하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조선전기 문종대(재위 1451-1453)에는 전라, 충청등 바다를 통해 서울로 운송되는 조세곡은 모두 용산에 하역되었고, 경상도, 강원도등 한강 상류를 통해 운송되는 조세곡은 모두 두모포에 하역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한강 상류의 조세곡은 용산에 하역되었지만, 한강 하류를 통해 올라오는 조운선은 서강에 정박하였다. 조세곡을 운반하는 대형선박이 용산까지 올라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

상지역과 수하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는 조선 전기에는 한강진이었으나 조선후기에는 마포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었다.

18세기 이후 경강은 수상과 수하지역, 그리고 팔강지역으로 분화되면서 상업중심지역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경강상업이 번성하고 있음은 18세기 후반 삼강에 설치된 술집이 600-700여곳이었고, 여기서 술제조에 소비되는 미곡만도 1년에 수만석을 넘고 있다는 기록이나, 술을 빚어놓은 항아리가 천여개에 달하는 집도 있었다는 기록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경강변은 새로운 상업중심지로서만이 아니라 유흥가로서의 모습도 띄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업중심지로 번성함에 따라 경강주변에는 각종 시전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처럼 경강에 시전이 대거 설치되어 도성내부를 능가하는 상업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자 자연히 서울의 도로도 경강으로 통하는 도로가 변화가로 변하였다. 이에 대해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을 살았던 다산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왕성(王城) 오부(五部)안의 애오개(아현동-인용자)는 서강으로 가는 길이고, 약점현(약현-인용자)은 용산으로 가는 길로서 곡물이 폭주하고 수레가 부딪치고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는 곳이다.

이처럼 경강은 전국의 선박이 집중되는 해운교통의 중심지로서 성장하면서, 각지의 빈민들이 몰려들어 상업이나, 또는 하역작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경강주변의 인구수는 1789년 전체 서울인구 20만명중에 3만 5천여명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인구통계에 비해 경강변 실제 거주인구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경강주변에는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유동인구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한편 18세기 후반 경강민들 사이에 소송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을 경강민을 “오강호송지민(五江好訟之民)” 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들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경강에서 돈을 번 자들은 상당한 위세를 가지고 연강지역을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경강부민들은 경강의 빈민민들을 마음대로 침탈하고, 나아가 살인을 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행패에 대해서 이웃사람들이 막지 못할 정도였다. 심지어 살인사건을 추조(推照)하는 법정에 까지 깃발을 날리면서 위세를 과시할 정도였다. 또한 이들의 행패를 제어하기 위해 경강에 파견된 한성부의 장교들을 구타하여 부상을 입힐 정도로 위세가 당당하였다.

이처럼 경강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나아가 부민들에 의한 소민침탈이 많아지자 조정에서도 1757년(영조 33)부터는 경강에 어사를 파견하여 경강민들의 고통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3) 경강 각 포구의 상업중심지로서의 특성

경강의 포구는 미곡, 어염, 목재유통의 중심지였다. 특히 서울 도성안의 소매상이나 행상들이 경강에 와서 어염이나 젓갈, 목재, 주류등을 구입한 뒤, 도성안에 들어가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하였다.

용산지역은 경상, 강원, 충청, 경기도 등지의 세곡을 한강 상류로부터 실어오는 조운선들의 종착점으로서 조선 초기부터 발전한 곳이었다. 이곳에는 군자감, 별영(別營), 별고(別庫)가 설치 되었고, 대동법 실시 이후에 삼남의 대동미를 수납하는 강창고(江倉庫)도 설치되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자가 이곳에 보관되었다.

이처럼 용산에는 창고가 많았으므로 용산민들은 각종 물자의 하역운송업에 종사하였다. 물자의 하역, 운송업도 운부계(運負契), 마계(馬契), 모민계(募民契), 거부(車夫)등으로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였다.

마포는 서해안과 한강상류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서강과 용산이 세곡운송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마포는 상품유통의 중심지였다. 서해안에서 경강으로 들어온 선박은 대부분 마포에서 짐을 부린 다음, 도성 안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다시 수상선으로 옮겨 한강상류로 이동하였다. 마포에는 삼남지역으로 부터 올라오는 미곡이나, 한강 상류로부터 나무를 실은 배가 많이 모이고, 서해의 어물이 많이 들어와 생선, 건어물, 젓갈, 소금등의 해산물이 집하되는 곳이었다. 특히 한강하구나 충청도에서 잡아 만든 새우젓이나 저린 생선의 취급처로 유명했다. 마포지역에는 경강 포구 중에 가장 많은 시전이 있었다.

마포는 18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여객주인(旅客主人)이 영업하는 유일한 지역이었

다. 그러므로 전국의 어물선상들이 마포에 몰려들었다. 마포에 도착하면, 여객주인은 성내에 있는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廳)에 이를 알려 매매를 알선하였다. 여객주인들은 강가에 집을 지어 살면서 강변의 여객, 상고(商賈)들을 접대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었다. 용산에서 화물의 하역운송을 담당하던 자들이 대부분 외부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면, 여객주인들은 경강변의 토박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마포의 여객주인들은 점차 도고상인(都賈商人)으로 성장하여, 18세기 후반에는 강상부민(江上富民)들로 불리우는 중요한 상업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8세기 중엽 강상부민(江上富民), 경강모리지배(京江牟利之輩) 등의 표현은 대부분 마포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이들 여객 주인층을 지칭한 것이었다.

서강은 황해, 전라, 충청도의 조세곡과 경기도 하류지방의 물자를 수송하는 배가 모두 여기에 모여드는 세곡운송의 중심지였다. 삼남지역에서 배로 운반된 조세곡은 일단 서강에서 하역되었다가, 다시 서울 경강변이나 도성내의 각 창고에 수상선이 나 말, 또는 지계를 이용하여 운반되었다. 서강에는 모든 관료의 녹봉용 미곡을 보관하는 광흥창이 있었다. 서강에는 세곡운송에 종사하는 각종 역인층과 상인만이 아니라 수철장(水鐵匠), 선장(船匠)등의 장인, 상업적 농업에 종사하는 부농들도 거주하였다.

양화진 주변의 마을로서 망원, 합정이 번성하였다. 양화진은 인천이나 강화로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나루로서, 교통상 중요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경관이 뛰어나 중국사신이 오면 풍류를 즐기는 곳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 곳은 성종(成宗)의 친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1454-1488)이 축대를 쌓고, 사빙고(私氷庫)를 설치하여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기 시작한 뒤에, 빙어선(氷魚船)에 대한 영업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얼음채취 판매업은 크게 번성하였다. 그러므로 대궐 내에 있었던 내빙고(內氷庫)도 1789년 양화진에 옮겨졌다.

한강(漢江) 지역은 현재의 한남대교부근에서 노량진까지로 여기에는 두모포가 있어 한강상류에서 내려오는 각종 물자들이 집하되어 서울에 반입되던 곳이었다. 특히 두모포 아래에 있는 한강진(漢江津: 현재 국철 한남역 자리)은 광주(廣州)로 건너가는 나루터로서 서울의 물화가 삼남지역으로 나가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한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고추, 마늘, 감자, 고구마등의 농산물과 목재, 장작 등이 모이고 있었다. 노량진은 한강진과 더불어 경강의 중요한 나루터로서 정조

대에는 배다리[舟橋]가 설치되었던 곳이었다.

두모포 근처에는 동빙고, 서빙고가 있었다. 동빙고는 창고가 하나로 종묘사직이 하 국가의 제사용 얼음이 저장되었다. 동빙고에 저장할 얼음은 청계천 하류의 더러운 곳을 피하여 주로 저자도 사이의 얼음을 채취했고, 얼음의 두께가 4촌(寸)은 되어야 채취하였다. 서빙고는 창고가 8개로 백관에게 나누어주는 얼음이 저장되었다.

독섬은 서울에서 충북지방과 경상도로 가는 길목으로 서울외곽의 상업도시로 번성하였다. 특히 한강 상류로 부터 벌목하여 내려오는 목재의 집산처로서, 1656년(효종 7)에 이곳에 호조에서 수세소를 설치하여 모든 나무에 대해서 십일세(什一稅)를 걷었다. 그 이후 독섬은 서울의 목재를 공급하는 주요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독섬에서는 숯의 판매가 활발하여 숯광골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4) 송파장(松坡場)의 유통중심지로의 성장

송파는 한성부 관할 구역은 아니었지만 경강변 상업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유통중심지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던 곳이었다. 송파는 18세기 이래 전국적 유통로의 발달 결과, 영남지방으로부터 충청내륙지방을 경유하는 상경로와 영남 내륙지방인 태백산, 봉화와 관동지방에서 여주, 이천을 경유하는 상경로가 만나는 한강변의 유통거점이었다. 다시 말하면 송파는 한강의 상, 하류로 통하는 두개의 수로와 동부와 남부 지방으로 통하는 두개의 육로가 집중되는 교통로의 교차지점에 발달한 상업중심지였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강원, 충청, 경상도의 미곡, 목재, 우마 및 석재, 과실류, 약재류, 도자기, 목면, 마, 견등의 각종 직물류, 연초, 기타 각 지방 토산물들이 모여들었으며, 또한 서울로부터는 강원, 충청, 경상도 지방으로 내려갈 어염을 위시해서 각종 고급직물, 기타 상품들이 모여들었다.

18세기 중엽 서울 주변의 교통요지에 위치한 송파장은 시전상업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유통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송파장에는 시전상인의 하부에서 시전상인에게 물건을 받아서 중간 도매업에 종사하던 중도아층과 ‘난전지류’가 서로 체결하여 시전상인을 배제하여 서울의 상권을 잠식하였다. 왜냐하면 시전인들이 행사하는 금난전권은 한성부의 사산금표(四山禁標) 지역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으로 송파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삼남, 영동, 함경도 상인들도 송파장에 모여들어 이제 서울을 거치지 않고도 전국의 물화가 유통될 수 있는 거점으

로서 송파장이 기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송파장은 5일마다 열리는 지방의 장시와 달리 점차 상설시장화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현방(懸房:푸줏간)에서 조차 시전인 우전(牛廐)에서 소를 구입하지 않고 송파장에서 직접 소를 구입할 정도였다. 이처럼 송파장이 중요한 유통근거지로 성장하면서 송파의 인구도 크게 늘어났다. 1789년에 조사된 송파장이 소재한 광주부 중대면의 인구는 726호에 3,044명이었다. 이 인구수는 소규모 군현 전체의 인구수와 비슷한 것이었다.

### 3. 경강상인의 성장과 자본축적

#### 1) 경강여객주인의 성장

주인(主人)의 뜻에는 관원등이 지숙(止宿)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므로 주인이라는 용어 앞에 많은 접두어들이 붙어 사용할 수 있었다. 예컨대 경주인(京主人), 영주인(營主人), 면주인(面主人), 사주인(私主人), 강주인(江主人), 선주인(船主人), 포구주인(浦口主人), 여객주인(旅客主人), 세곡주인(稅穀主人), 창주인(倉主人), 식주인(食主人) 등등의 용어가 조선 후기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주인 영업자들은 영업대상은 각기 달랐지만, 숙박업이나 음료식업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경강을 무대로 활약했던 층은 세곡주인, 선주인, 여객주인이었다.

주인영업은 처음부터 세곡주인, 선주인, 여객주인등으로 영업대상을 구분하면서 존재한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분화되지 않은 채 기능이 착종되고 있다가, 이들 기능이 분화되면서 이러한 구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상에 따라 주인 명칭이 정해지기 보다는 주인영업이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경강주인, 강주인, 포구주인 등으로도 불렸다. 주인영업의 이러한 특성때문에 여객주인업의 기원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

여객주인의 영업내용은 거간과 선주인营业을 겸하는 것이었다. 즉 선상들에 대한 숙식제공과 더불어 상품의 보관, 그리고 매매중개업을 담당하였다. 여객주인들의 최초 영업지는 마포였다.

여객주인권은 여객주인들이 선상들에게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였다. 선상들의 입장에서조차 자금의 부족이나 또는 부채를 갚기 위해 자신을 여객주인에게 방매

함으로써 주인과 객상관계가 성립하였다. 선상이 자기방매하는 가격은 대체로 50냥 내외였으며, 방매한 객상 자신은 물론 그 후손도 주인에게 예속되었다. 여객주인권의 발생은 이처럼 여객상고와 주인사이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성립하였다. 이제 모든 객상이 주인에게 일정한 댓가를 받고 자기방매함으로써 주인과 객상간의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발생은 주인권이 경제적 권리로 성장하는 근거였다.

여객주인이 객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주인권은 매매, 상속, 양도가 자유로운 재산권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았다. 만약에 선상들이 주인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상품을 매매할 경우, 선상들은 ‘횡반주인지죄(橫叛主人之罪: 주인을 배반하여 도망간 죄)’로 처벌되었다.

주인권은 경제적 권리였으므로 주인권을 전당하여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권리는 원래는 주인이 선상들에게서 받는 구문(口文)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구문은 원래 상품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인 거간이 얻는 수익이었다. 그러나 주인층이 선상들에게 돈을 주고 주인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다른 주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인층이 곧 거간의 역할도 겸하여 선상들의 싼고 온 상품의 자유로운 판매를 통제하였던 것이다.

18세기 이후 경강에서의 주인-객상관계는 상품유통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포유주 일세지통규(有浦有主 一世之通規)’라는 표현처럼 포구에 여객주인이 없으면 매매에 곤란을 받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외지에서 온 상인들은 전적으로 주인에 의지하여 상품을 거래하였고, 주인이 없으면 상인들도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여객주인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유통기구로서 정착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경강에서 다양한 성격의 주인층 기능도 통합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선주인, 세곡주인, 여객주인 등도 대부분 한사람의 수중에 장악되어 점차 이들 영업에 대한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18세기 이후의 자료에서는 이들 주인의 기능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경강주인’으로 통칭하였고, 이 때 ‘경강주인’은 대부분 여객주인을 지칭하였다. 그리고 여객주인이라는 용어는 개항 이후 객주나 여각으로 불리우게 된다.

## 2) 여객주인층의 상품유통장악과 도고상인(都賈商人)으로의 성장

여객주인이 상품유통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자 주인층의 선상에 대한 지배권도 점차 강화되었다. 주인권의 권리 내용도 상품거래를 중개하여 구문을 얻는 것에서 상품에 대한 주인층의 독점적 판매권으로 전화하였다. 이제 선상들은 싼고 온 상품을 시세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주인을 통하여 매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여객주인권도 개별 상인과 주인사이에 성립하던 데서 점차 한개 군현이나 면 전체의 상인을 대상으로 주인권을 성립하게 되었다. 지방 한 지역 전체의 선상(船商)과 선인(船人)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역주인권(地域主人權)이 성립한 것이다. 예컨대 경강에는 영암주인, 해남주인, 강진주인등의 여객주인들이 존재하였다. 이는 영암, 해남, 강진등 군 지역 전체의 선상을 관할하는 주인이라는 의미였다.

지역주인권의 성립을 계기로 점차 주인권의 성립과정에서도 봉건권력이 개입하게 되었다. 주인-객상관계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품거래를 주선한 댁가로 받았던 구문도 상업세로 변하게 된다. 즉 구문은 이제 선상의 자유로운 상품유통을 보조하는 [仲介斡旋] 댁가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선상이 포구에 도착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변하였던 것이다. 이는 주인층의 선상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구문의 양은 각 포구의 사정에 따라 달랐다. 일정한 비율로 정할 경우에도 물종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었으며, 물종별 구분이 없이 상품의 판매가격중 일정비율을 구문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구문액이 각 포구마다 달랐던 것은 구문액의 결정이 여객과 주인간의 오랜 거래관계를 통하여 점차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구문의 양은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판매가격의 10-20%가 보통이었다.

이렇듯 구문이 합리적인 경제행위의 댁가가 아니라 봉건적 특권의 개입에 의한 경제외적 수탈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고, 주인이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면 주인층이 얻는 이익도 커지고, 주인층의 사회경제적 처지도 변하게 된다. 초기 주인층은 대부분 포구주변의 빈한지민이나 천민이었지만 주인권이 경제적 권리로서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되자 포구주변의 부민층이나 지방의 세력가가 주인층으로 진출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가 변하는 이유는 빈한지민, 천민이 주인경영을 통하여 스스로 부를 축적하는데서 비롯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포

구주위의 세력가들이 막대한 이익을 낚는 주인권을 사들이거나 관권과 결탁하여 주인권을 빼앗는 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

19세기 이후 대부분의 여객주인권은 양반이나 또는 궁방권력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이들 양반이나 궁방은 여러지역의 주인권을 집중시켜 소유하였다. 이들 주인권에 투자한 부민이나 양반관료는 단순한 경제력만의 소유자들은 아니라 대부분 권력과 결탁한 자들이었다.

19세기 이후 여객주인층들은 봉건권력과 결탁을 공고히 하면서 경강에서의 상품유통을 장악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제 경강의 상품유통은 여객주인을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물화의 유통시기와량을 조절하면서 가격까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위치로 성장하였다. 주인층은 선상들이 싣고 온 물화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마음대로 조종하는 도고상인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여객주인층은 처음에는 상품유통의 보조자로서 선상들의 상업활동에서 생겨나는 상업 이윤중 일부를 구문으로 받아 자생하는 상업이윤에의 기생자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이후 직접 상품유통을 담당하여 최대한의 상업이윤을 창출하는 도고상인으로 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다.

19세기 경강여객주인은 경강에서의 상품유통을 장악함으로써 서울에서 소비되는 각종 상품의 출하시기와 가격을 조절하는 위치로 성장하였는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833년(순조 33) 서울의 ‘쌀폭동’이었다. 이 사건은 마포의 동막 여객주인 김재순(金在純)이 경강의 여러 여객주인을 지휘하여 미곡의 판매를 통제하였고, 나아가 시전상인들까지도 미곡매매를 중지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서울의 미곡시장을 완전히 붕괴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미곡시장의 붕괴로 서울의 쌀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의 빈민층이 쌀값폭등에 항의하여 대규모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세기 경강의 여객주인이 도성안의 시전인 미전(米廩)보다는 훨씬 주도적으로 미가의 조절기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여객주인층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3) 하역운수업과 마계(馬契)·운부계(運負契)

서울을 끼고 도는 한강지역, 즉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의 한강지역을 경강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전국적 해운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18세기이후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특히 선박의 집중으로 물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몰려든 빈잔민들이 여러 영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인구도 급증했다.

경강중에서도 용산에는 군량을 보관했던 군자감과 삼남대동창, 그리고 다른 아문들의 창고도 많이 설치된 곳이었다.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은 창고까지 조세곡을 하역운반하거나 다른 물자의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자의 운수역은 원래 서울 오부방민의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여 수행하는 방역(坊役)이었으나, 17세기 초 경강민에게만 부과되는 役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 직접 징발체제는 17세기 후반을 계기로 물납세로 변화되었고, 18세기초 정부에서는 이 운수역을 마계·운부계등의 공인계를 창설하여 담당토록 하였다.

운부계는 주로 사람의 등이나 지게를 이용하여 경강에 도착한 조운선에서 세곡을 부려 각 아문의 창고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마계는 정부의 공용물자를 말을 이용하여 태운(駄運)하였다. 운부계의 운임은 풍족하여 운부계인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반면, 마계는 정부에서 지불하는 운임과 경강민들로부터 걷는 물납세를 합해도 경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에서는 운부계와 마계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운부계인이 마계를 흡수한 셈이었다.

마계의 운영권까지 장악한 운부계인들은 경강변의 각종 화물의 하역, 운부역을 독점하였다. 운부계인들은 자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경강변 빈민들의 일반 화물의 하역, 운송업까지 독점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용산 운부계(龍山運負契)의 운부도고(運負都賈)가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산의 운부도고에 반대하여 용산이외의 마포나 서강, 망원·합정등 다른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국왕에게 격쟁과 상언을 올렸다. 운부도고를 둘러싼 분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다. 결국 도고영업은 혁파되었고, 용산이외의 지역에서도 하역운수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하역운수업의 자유경쟁체제도 19세기이후에는 붕괴되어, 경강의 부호와 도성내의 유력자들에 의해 모두 독점되기에 이른다.



#### 4) 민간장빙업과 장빙도고

원래 겨울에 얼음을 저장하고 여름에 나누어주는 일은 빙고에서 담당하는 일이었다. 정부에 소속된 빙고는 동빙고, 서빙고와 궁궐안의 내빙고 2곳등 네 곳이 있었다. 각 빙고에서는 한강에서 얼음을 채빙하여 얼음을 저장하는 일을 경강민에게 부여하여 부과하였다. 이를 장빙역이라고 했는데, 이 장빙역도 17세기 후반이후 점차 물납제로 전환되었고, 18세기 후반에는 하역운수역과 마찬가지로 공인제인 빙계가 창설되어 경강민들을 급가고립하여 얼음을 저장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얼음은 한강변 저자도근처에서 음력 12월이나 1월중 오전 2시경에서 해뜨기 전에, 길이 1척오촌, 폭 1척, 두께 5-7촌정도로 잘라서 한 장씩 떼내었고, 이렇게 채취한 얼음을 지게나 수레를 이용하여 빙고까지 운반하였다. 빙고에서는 채취한 얼음을 차례대로 배열하고, 틈마다 얼음조각을 삽입하여 조그마한 틈도 없게 한 다음, 위에 빈 가마니 여러 장을 덮어 외부의 공기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얼음이 녹는 것을 방지하였다. 얼음을 채취하는 채빙공과 빙고에 저장하는 저장공은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숙련노동자를 고용했지만, 운반에는 품팔이노동자를 고용하였다. 장빙업은 빈민들이 겨울철에도 살아 갈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 영업이었던 셈이다.

이와 같은 관영빙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빙업은 원래 여름철에 왕실과 고위 관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민간에게 얼음을 판매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민간장빙업도 성행했다. 18세기 이후에는 민간인 가정에서도 육류와 어물의 소비가 늘면서, 현방(懸房)이나 생선전(生鮮廛)에서의 얼음수요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냉장선의 일종인 빙어선(氷魚船)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민수용(民需用) 얼음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당시 민수용얼음의 수요는 관청에서의 수요에 비해 4배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했다. 그러므로 민수용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인 사빙고(私氷庫)도 18세기 후반에는 30여곳으로 늘었지만, 이곳에서 조달되는 얼음은 여름 한철 얼음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정도였다.

이처럼 얼음수요가 많았으므로 민간장빙업은 많은 이익을 남겼다. 18세기말의 자료에 의하면 한해에 1만냥을 투자하여 최소 2만냥에서 최대 20만냥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장빙업이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었으므로, 민간장빙업에는 ‘증경현직자(曾經顯職者:고위 관직을 역임한 사람)’ 거나 ‘반호지관어모리자

(班戶之慣於牟利者：양반으로서 이익에 매우 밝고 익숙한 사람)’ 등 상당한 세력을 가진 자들이 참여하였다. 실제 18세기 후반 유력한 장빙업자인 강경환(姜慶煥)은 양반으로서 강희맹(姜希孟)의 후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빙업을 독점하기 위한 분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 4. 맺음말

18세기 이후 서울은 상업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외부에서의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나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육상, 해상교통도 발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은 전통적으로 정치, 군사, 행정중심지로서만이 아니라 전국적 시장권의 중심지로서 성장하였다.

철도가 부설되기 이전 해상, 수상교통은 상품유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 조선후기 경강지역은 해운, 수운의 전국적 중심지로서 서울의 상업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후기에 가장 대표적인 상업세력은 경강상인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경강의 여객주인층이었다.

경강상인들의 영업은 외지에서 온 상인들을 접대하고 거래를 알선하는 객주영업 외에도 대형 선박을 소유하고 정부의 조세곡과 민간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운업, 그리고 지방의 미곡이나 어염을 싸게 구입하여 서울 시장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선상업 등 다양했다. 이외에도 장빙업이나 하역운수업도 경강상인들이 진출한 영업분야였다. 이처럼 경강상인들의 영업분야는 매우 다양했지만, 점차 자본력의 큰 상인층에 의해 이러한 영업들은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경강상인들의 자본축적도 매우 커졌다. 이처럼 경강상인들이 차지하는 상업이윤이 늘어나자 권력기관이나 권세가들이 이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경강상인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상업이윤을 권력기관이나 권세가들과 나누어 갖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19세기 전반 세도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경강주인층의 자본축적은 권력층의 침탈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개항이후 침투한 외래자본과 경쟁하여 승리할 만큼 자본축적을 이루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 상권수호에 앞장선 인천객주

이영호(인하대학교)



## 상권수호에 앞장선 인천객주

이영호(인하대학교)

### 1. 인천개항장의 상권경쟁

1883년 1월 개항한 인천에는 일본상인, 중국상인, 서양상인, 조선상인이 모여들어 국제무역시장을 형성했다. 일본상인은 주로 무역상, 잡화상, 객주업, 운송업에 종사했다. 일본상인들은 일본우선주식회사, 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 등 교통망과 금융 시스템의 지원을 받았다. 청국상인은 자본규모가 영세한 잡화상이 많았는데, 광둥(廣東)상인 동순태(同順泰)는 대자본을 소유하여 동아시아 화교상인 네트워크의 중심을 차지했다. 청국상인은 청일전쟁 이전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위안스카이(원세개, 袁世凱)의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 한편 서양상인으로는 영국의 이화양행(怡和洋行, Jardine Matheson & Co.), 미국의 타운센드상회, 독일의 세창양행(世昌洋行)을 들 수 있다. 이화양행은 일찍 철수하고 나중에 그와 연관된 광창양행(廣昌洋行)이 들어왔다. 조선상인으로는 1883년 대동상회, 순신창상회, 1885년 태평회사, 1886년 제흥상회, 1889년 광성회사, 1893년 육운회사, 1895년 공동회사 등이 있었다. 갑오개혁 이전 이들 회사나 상회는 명칭과는 달리 중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천 개항장의 상업활동은 주로 무역이었는데 그 매매주선을 담당하는 것은 전통적인 상인으로서 개항장에 진출한 객주였다. 객주들은 1885년 인천객주회를 조직하고, 조선정부는 객주로부터 구문(口文, 처음 30%, 대한제국기 20%)을 징수하는 대신 매매주선의 독점권을 부여했다. 1889년에는 구문을 영업세로 바꾸고 매년 1만냥의 영업세를 4월과 10월로 나누어 7천 냥은 육영공원에, 3천냥은 통리아문에 납입토록 했다. 그리고 제물포의 객주 25명을 선정하여 경강주인(京江主人)의 예에

따라 각읍을 나누어 각읍주인으로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대한 매매의 주선을 전관(專管)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새로 생긴 상회사들은 객주의 독점에 반대하여 분쟁이 생겼다. 1890년 상회의 자본으로 구입한 화물은 상회가 직접 판매하고, 각읍의 토산품은 각읍주인인 객주가 매매를 주선하는 조정을 꾀했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자유상업주의를 채택하여 시전상인과 객주 및 상회사의 독점행위는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상인과 국내상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양한 처지의 국내상인 사이에도 경쟁이 일어났다.

## 2. 인천객주 서상집의 활동

### 1) 타운센드상회의 서상집

1884년 5월 1일 인천항에 도착한 타운센드는 인천에 요코하마 미국 무역상사의 조선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활동했다. 그는 인천에 타운센드상회를 개설하는 한편 한국인 회사 순신창회사를 인수했다. 그리고 1888년 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서상집(徐相濬)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1888년 6월경 미국순신창상회와 그 관리인 서상집, 그리고 인천감리 및 세관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미국공사는 순신창상회 관리인 서상집이 상품운송을 위해 조선배 2척을 고용하여 상회의 깃발을 내걸고 입항했는데, 인천감리서에서 깃발과 물품을 빼앗고 서상집과 선원들을 체포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인천감리 박제순(朴齊純, 1858~1916)은 서상집이 미국상인을 위해 활동한 불법적 행위를 비난했다. 즉 서상집의 상선이 인천항에 들어올 때마다 미국상선의 깃발을 달고 미국상인이 고용한 배라고 주장하면서 세관의 과세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또 인천감리 박제순이 공적 운송을 위해 선박을 징발할 때 서상집은 외국인에 고용되었다고 거부한 것을 괘씸하게 여겼다. 박제순은 배가 순신창상회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서상집이 사주하여 깃발만 고쳐 달았다고 서상집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미국공사가 나서 서상집이 순신창에 꼭 필요한 사람이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여 사태를 봉합했다. 박제순은 외국상인이 조선배를 고용할 때는 감리서에 신청하라고 하면서 서상집을 방면했다.

타운센드는 서상집을 내세워 순신창상회를 경영하면서 연안무역을 통해 주로 미

곡무역을 전개하여 수익을 올렸다. 서상집은 경강을 왕래하고 용산에까지 진출했다. 창고가 없어 1893년 봄 마포에 창고를 짓기 위해 일본에서 기술자를 초빙할 정도였다. 통리아문에서는 “일본기술자를 초빙하여 일본식을 채용해야만 멋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건축물도 드나들만하고 또 죽히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왜 꼭 멀리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구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키는가? 이미 건축한 방은 먼저 철거하여 죄를 짓지 말라” 고 했다.

## 2) 공동회사 경영

갑오개혁에 의해 자유상업시대에 접어들자 서상집은 1895년 3월 공동회사(公同會社)를 설립했다. 갑오개혁은 일본에 의해 타율적으로 진행된 측면도 있지만 유길준(兪吉濬)의 개혁방안이 관철된 측면도 있다. 유길준의 동생 유성준(兪星濬)의 도움을 받았다. 유성준은 1883년 일본 계의오의숙(경응의숙, 慶應義塾)에 유학하고,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주사를 역임했다. 1891년에는 전운서(轉運署) 사무관으로서 기선 창룡호를 이용하여 삼남지방의 조세곡 조운(漕運)을 담당했다. 갑오개혁 때인 1894년 12월에는 선백회사 인천 이운사(利運社)의 사장을 맡았다. 이운사는 1893년 창설되어 세곡운송, 화물 및 여객운송 기능을 수행하다가 갑오개혁 이후 인천항 상인에 의한 민영화를 거쳐 일본우선회사에 위탁되었는데, 이때 유성준이 사장을 맡았던 것이다. 1895년 4월 요코하마와 상하이의 해관시찰에 나갈 때 공동회사 사장이던 서상집이 그 비용을 지원했다. 가족 지원금도 지불했다.

공동회사는 갑오개혁의 조세금납화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반(半) 공적(公的) 회사였다. 조세금납화 조치로 인하여 서울에는 세금이 돈으로 들어오지만, 세곡은 지방의 생산지에 그대로 머물러 서울의 곡가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지방에는 생산물은 넘쳐나지만 돈이 부족한 금융경색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곡유통의 활성화가 요구되었다. 정부에서는 은행이 설립되기 이전에 우선 차인, 객주, 선상 등으로 하여금 지방에서 미곡을 매입하여 서울에 비축하거나 방매하는 방식으로 미곡유통의 활성화를 꾀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기구로 미상회사를 설립했다. 공동회사는 미상회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회사였다. 나아가 금지가 풀린 홍삼무역을 담당했다.

### 3) 신상회사 조직과 활동

청일전쟁 이후 조선상인과 일본상인의 상권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 일본은 1896년 3월 인천에서 미두거래소(인천미두취인소, 仁川米豆取引所)를 설립하여 조선인 객주의 역할을 흡수하고자 했다.

이에 인천상인, 주로 객주들이 모여 이에 대항하고자 1897년 1월 인천항신상회사(仁川港紳商會社)를 조직했다. 사장은 정부관리가 맡고 부사장은 서상집, 박명규가 맡았다. 애국적 상인단체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 경축일에 국기를 게양하고 채색등을 설치하여 축하하는데 앞장섰다. 이런 세력을 바탕으로 내장원에 세금을 내면서 다시 상품중개 독점권을 획득했다. 일본상인들이 설립한 인천항수출국물상조합과 대립하며 상권 수호에 나섰다. 외국상인과 경쟁하며 상업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곧 애국적 국익의 보호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서상집은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그는 1898년 당시 45세로서 1854년생으로 추정된다. 본관은 대구이고 직업은 상업이며, 인천항 축현리 외동 4통 6호, 기와 56간, 초가 6간, 합하여 62간에 거주했다. 서상집에 거주하는 인구는 남자 5명, 여자 8명, 합 13명이었다. 22통 7호의 초가 12간의 빈집도 소유했다. 그는 당시 인천의 ‘부상(富商)’으로 칭해졌다. 1902년 3월 15일에는 축현의 평당 1원짜리 땅 5,630평을 일본조계에 기부하여 일본영사관에서 그를 포상하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본인 거주지 인근의 금싸라기 상업지구의 땅 5천여평을 기부한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한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만큼 땅부자인 것도 보여준다.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그는 조선업, 해운업, 금융업에도 투자했다. 월미도 남쪽에 선박조선소와 창고, 그리고 선박수리소의 개설을 추진했다. 대한천일은행에도 자본금을 투자하여 인천지점을 책임졌다.

### 4) 정치활동

서상집은 1900년 8월에는 조병식이 주일공사로 파견될 때 그 수행원으로 도일하여 개화파 망명자의 동향을 탐지하는 밀명을 수행했다. 이때 박영효로부터 개혁자금, 유길준으로부터 저작출판비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후 유길준은 고종황제의 폐위



를 포함한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서상집을 국내 자금책으로 지목하고,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다. 서상집의 자금에 기대를 건 유길준은 정변 성공 이후의 조각 명단에 막강한 정치가들과 나란히 서상집의 이름을 올려주었다.

고종의 밀명을 받고 서상집은 유길준의 쿠데타 모의의 참여했다. 아지트 마련을 위해 석유 100상자를 제공하여 유길준의 추종자들이 종로에 상점을 열도록 했다. 유길준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원 및 총포점 개설도 요구했다.

서상집은 잘못 역당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고종으로부터 확인서도 받았다. “신이 역당을 정탐하는 일로 해도안록(該徒案錄)에 들어가고 사주전(私鑄錢)에 관여한 것은 모두 칙교를 받들어 거행한 것인 즉 거실차(據實次) 문적의 하사를 복축(伏祝)함. 신축(辛丑) 11월일”이라는 계자문적(啓字文蹟)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상집은 유길준 쿠데타 기도가 발각된 뒤 1902년 한달 넘게 구속되어 심문받았다. 심문관은 광무정권의 핵심실세인 경무사 이용익다. 고종의 밀명을 받고 있던 서상집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1902년 7월 2일 인천감리 하상기가 경무청 경무국장으로 가고 서상집이 7월 9일 인천감리에 취임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국제무역항 인천항의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다. 그렇지만 고종의 조정과 비호로 이용익이 다시 발탁되어 탁지부대신서리에 임명되자, 겨우 7월 28일 부임하여 시무하던 서상집은 8월 17일 교체되고 말았다. 서상집은 제대로 감리 역할을 할 시간을 얻지 못했지만 이후 ‘서감리택’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한국이 보호국이 된 뒤 개화파 박영효, 유길준은 금의환향 했다. 국내에 발 붙힐 곳 없게 된 서상집은 1906년 말 상하이로 건너가 기선 한척을 매입하여 해운업을 경영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태무양행이라는 무역회사를 경영했다는 설이 있다.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알 수 없으나 독립 운동가들이 상하이의 한국인 부자로 민영철, 민영익, 민영찬 등 민씨들과 함께 서상집을 들고 자금을 요청했다고 전한다.

### 3. 중국 매판 정관잉

매판(買辦)은 청나라 대외개방 항구에서 출현한 존재다. 1842년 남경조약 이전의 광동체제에서는 광저우의 13행에서 외국 무역상인들을 상대하던 중국인 무역 중개인들을 가리킨다. 개항 이후에는 외국상인들이 개항장에 정주하게 됨에 따라 외국

상인에 고용된 중개인으로 내륙의 중국상인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개항 전후 매판의 지위는 무역상인에서 중개상인으로 하락했다.

개항 후의 매판은 외국인 회사의 고용인, 거래의 중개인, 외국상인 대신 내륙에서 상품매매하는 대리인, 외국상인의 위탁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도급업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품거래의 중개인이었다. 그러면서 자본가로 성장하여 독립상인이 되기도 하고 해운업, 광산업, 방직업 등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개항장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자본가로 성장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상승을 꾀하여 개항장의 지도층 인사로 성장하여 상인단체를 이끌었다. 정치적으로는 신분상승과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애국적 혁명운동에도 동참했다. 문화적으로는 언어, 자녀교육, 생활양식 등에 있어서 전통적 가치관을 탈피하고 서구식을 추종했다. 지식은 어정쩡한 편이지만 근대사상을 수용하기도 했다. 매판은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을 중개한 전형적인 주변인으로 두 문화 중 어떤 쪽에도 속하지 않은, 두 문화를 한몸에 지닌 문화혼혈아였다고 평가되었다.

정관잉(정관응, 鄭觀應)은 청나라가 개항 후 매판으로 출발하여 자본가로 성장하고 양무운동을 주도하던 이홍장(이홍장, 李鴻章)에게 발탁되어 정부해운회사 초상국(招商局)의 총판(總辦)이 되었다. 그는 『이언(易言)』, 『성세위언(盛世爲言)』을 저술하는 등 개혁사상을 펼쳤다. 그렇지만 그의 양무사상은 청일전쟁 이후 힘을 잃었다.

#### 4. 맺음말

인천개항장에서 국내외상인과의 관계망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상인으로 서상집을 소개했다. 그는 인천 개항 초기에는 미국계 타운센드 순신창상회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갑오개혁기에는 공동회사를 세워 조세상납 대행 및 미국무역, 그리고 해외로의 홍삼무역을 꾀했다. 대한제국기에는 신상회사를 조직하여 일본인 상인단체에 대항하는 한편, 해운업·조선업·금융업에 뛰어들어 인천의 부호, 부상, 곧 대표적 자본가로 성장했다. 경제적 성장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관계망에 포섭되지 않을 수 없어 개화와 유길준의 쿠데타기도 사건에 연루되었다.

서상집의 활동 중 타운센드 상회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측면에서 중국의 매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생활 문화의 측면에서도 중국 매판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는 인천 율목동에 유일한 2층 양옥집을 지었고, 큰 아들 서병의를 상해의 대학 및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유학을 보냈다. “그는 부호인지라 자녀도 언제나 새로운 스타일의 양복을 쪽쪽 빼입고 다녔으며 신기한 소지품들도 많았다. 또 멋진 오토바이를 몰고 으스대는 신식청년이었던 까닭에 그 시절 청년들의 선망을 온통 받고 있었다. 윗터골 운동장으로 축구를 하러 나올 적이면 일반청년들은 겨우 짚신을 신고 나왔건만 그들 형제는 가죽 축구화도 부족해서 정강이까지 가죽용구로 감싸고 나오는 통에 모두 기가 죽었다고 한다.” 타운센드와는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여 피신할 때 그 집에 숨어지내기도 하고, 누이가 타운센드와 동거한다는 소문도 돌 정도로 서양식에 익숙했다. 서상집은 정치적으로 연계되기도 했지만 개혁사상을 습득하지 못했다. 근대전환기 한국의 정치, 사상, 경제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이상,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정관잉 매판의 사례에 비추어 서상집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 개성상인의 성공비결, 다양한 상업제도의 발달

양정필(제주대학교)



# 개성상인의 성공 비결, 다양한 상업제도의 발달

양정필(제주대학교)

## 1. 개성상인의 기원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로 개경은 고려 수도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한양 천도 후 개경 사람들의 동향을 보면 우선 새로운 나라 조선 건국 및 한양 천도로 인해 한양으로 이주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 왕조 건국에 공감하지 않은 이들은 한양으로 이주할 수 없었다. 그들 중 몇몇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정몽주 등), 일부는 낙향하거나 운둔을 선택하였다. 한편 한양으로 이주하지도 않고 시골로 내려가지도 않은 이들은 개성에 그대로 남아서 살았다. 조선은 그들은 고려 유민(遺民)으로 취급하였다.

개성에 남은 사람들의 2-3세대 후손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개성상인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사농공상’이라 하여 사족을 최고로 치고 상인을 가장 천시하였다. 그럼에도 개성에 남은 사람들의 후손들은 장사를 선택하였다. 그들이 장사를 선택한 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들이 ‘사(士)’와 ‘농(農)’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데, 1470년대까지 개성에서 과거가 시행되지 않아서 관직 진출이 불가능하였다. 개성인이 사족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또 개성의 입지는 분지형으로 그 내부 면적이 협소하여 농토가 부족하다. 다수의 개성 거주민이 그 좁은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공’과 ‘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 개성상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수공업에도 활

발하게 종사한 것이 기록으로 확인된다. 개성 유민이 장사를 시작한 시기는 대개 15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 그때 이후 기록에서 개성인이 장사를 한다는 내용을 다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개성 사람들이 선택한 장사 방법은 지방 행상, 혹은 객지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장사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개성 시내에서도 상업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천 명이 넘는 상인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개성 시내 상권이 협소하였다. 그래서 다수의 개성상인은 초창기부터 개성 시내가 아니라 타지로 가서 장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를 ‘지방출상’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전반기를 살았던 이증환은 택리지에서 조선 건국 초기 개성상인의 기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태조가 왕위를 물려받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 왕씨(王氏)의 신하였던 세가(世家)와 대족(大族)으로 태조에게 항복하고자 아니 하는 자는 그냥 개성에 남고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살던 동리를 두문동(杜門洞)이라고 하였다. 태조는 그들을 미워해서 개성 선비에게는 백 년 동안 과거를 보이지 말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남아서 살던 자의 아들과 손자의 대(代)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평민이 되어 장사하는 것을 생업(生業)으로 삼고 선비의 학업(學業)은 닦지 아니 하였다. 드디어 3백 년 이래로 개성에는 사대부라는 명칭이 없어졌고, 경성의 사대부들도 개성에 가서 사는 자가 또한 없었다.” (이증환, 택리지, 팔도총론 경기)

## 2. 개성상인과 정치권력

개성에 남은 사람들, 고려 유민은 고려에 대해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개성에 남은 사람들의 사연은 제각각이겠지만, 조선 정부는 그들을 고려 유민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적으로 개성에서 과거를 한 동안 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하였다.

이처럼 개성상인이 상인으로 나선 배경에는 조선 왕조의 정치적 차별도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당시 가장 천시받던 상인으로 나서야 했던 개성상인들이 조선 정부, 정치권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했을 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장사한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갖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조선 정부, 정치권력은 개성상인을 비호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 사실 장사를 하면서 단기간에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는 것이다. 물론 그 댓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개성상인은 그럴 수 없었다.

개성인들은 두문동 고사를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초기 개성상인의 자세를 후손들에게 면면히 계승시켰다. 두문동 고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 고을은 고려의 오백 년 옛 도읍으로 도덕과 예법으로 길렀으니, 염치가 있는 곳이면 비록 베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지킨 바를 바꾸지 않는다. 휘가 의생인 분은 나의 8代祖인데, 고려 말에 임선미, 맹씨 성을 가진 분 등 70여 인과 더불어 서교에 은거하였다. 나라가 바뀌자 문을 닫고 절의를 지켰는데, 화를 입음에 미처서는 모두가 앞 다투어 목을 늘였다. 지금까지 두문동이라고 부른다. … 우리 태조께서 친히 과거를 베풀어서 지성으로 깨우쳐 흠결을 씻고 거두어 쓰고자 하였으되, 한 사람도 과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그 몸은 욕되게 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은 굽힐 수 없고, 그 이름은 천하게 할 수 있으나 그 뜻은 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정치권력에 의지할 수 없었던 개성상인들은 오로지 상업적 능력, 경제적 수단에 의해서만 성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자신들에게 맞는 상업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개성상인도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 시행착오의 한 가지 사례로 조선전기 문헌 기록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채무 관계를 둘러싼 소송전을 언급할 수 있다. 개성상인이 활동을 시작한 초기의 개성 지역은 송사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였다. 장사를 떠나는 이들이 개성의 부자로부터 밀전을 마련하고는 제대로 갚지 않아서 채무를 둘러싼 소송이 빈발하였던 것이다. 이런 소송전의 빈발은 아직 개성성상인 채무를 둘러싼 신용 제도를 확립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가 되면 반전이 일어난다. 조선후기의 개성 지역은

오히려 소송이 적은 곳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는 개성상인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채무를 둘러싼 갈등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방법은 사환제도, 차인제도 등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3. 조선후기 개성상인의 성장

조선후기 개성상인은 국내 교역은 물론 국제무역까지 주도하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여러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서술한 다음을 보면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상대고에 이르러서는 앉아서 재물을 부리되, 남으로 왜국과 통하고 북으로 연경과 통한다. 여러 해 천하의 물자를 실어내어 혹 누백만금을 모은 자도 있는데, 한양에 많고 그 다음이 개성, 또 그 다음이 평양과 안주이다. 모두 연경과 통하는 길에 있어 거부를 쌓았는데 이는 배를 통한 이익과는 비교가 안되며 삼남에는 이런 부류가 없다.” (이중환, 택리지)

이중환이 택리를 쓴 시기는 18세기 전반기인데, 당시 전국적인 부자들은 청나라와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무역에서 맹활약하였다. 그들은 국제무역에 종사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상업 활동을 한 삼남 지방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거부를 모을 수 있었다. 그런 거부가 많은 곳으로 1등은 한양이었다. 한양은 당시 조선의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사상 등 모든 방면에서 중심이었으므로 한양이 1등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2등이 개성이었다. 이를 통해 개성상인이 국내의 상업활동은 물론 국제무역까지 장악하여 거부를 축적해 가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개성상인의 상업 전통

### 1) 상인 재생산 시스템

사환: 앞에서 조선전기에는 부채를 둘러싼 소송전이 빈번하였는데, 조선후기에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만의 상업제도를 발전시켜 그 문제를 해결한 덕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성상인이 발전시킨 상업제도는 사환제도를 꼽을 수 있겠다. 사환이란 말 그대로 가게에서 잡다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개성의 사환은 단순히 잡일만 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들은 예비 개성상인으로서, 장차 어엿한 개성상인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떤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사환은 대체로 기본적인 글을 깨우친 후 10세 전후한 나이에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청소 등을 시작하면서 상업계에 추진하였다. 그들의 초기 업무는 청소, 물품정리, 상품 진열, 손님 응대, 상품포장 및 배달 등 다양하였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의 기초를 배워나갔다. 그런 생활을 수년 하면서 가게 주인의 인정을 받으면 치부법, 즉 장부 기입법도 배우고 직접 주문을 받으러 다니기도 하였다. 사환을 시작해서 몇 년 간은 보수가 없었다. 사환은 일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일을 배우는 존재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제강점기가 되면 문제가 되어 사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게 되지만, 조선시대에 사환의 처우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된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다.

보수가 없음에도 개성의 어린 소년들이 사환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보수가 없는 대신 사환 생활을 하면서 성실과 능력으로 주인의 선택을 받게 되면 그가 사환 생활을 끝내고 독립 상인이 되어 장사를 나갈 때 주인이 그에게 장사 밑천을 마련해 주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장사 밑천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수 년간의 무보수가 결국 나중에 장사 밑천 마련으로 보상받는 셈이므로 기꺼이 무보수로 사환 생활을 하였던 것 같다.

주인 입장에서는 수년 간 데리고 있으면서 눈여겨 본 후 상인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환에게 장사 밑천을 조달해 주는 것이므로, 그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았고 따라서 장차 밑천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다. 조선전기 빈번한 소송전이 조선후기 거의 종식되기에 이른 이면에는 이처럼 사환 제도가

개성상인 내에서 상업제도로써 정착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방출상:** 수년 길게는 10년 넘게 사환 생활을 거쳐 어엿한 성인 상인으로 성장하면 이제 독립하여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때 연령은 대개 20대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배출된 새로운 상인은 많은 반면, 개성 시내의 상권은 그들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다수는 다른 지방으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를 ‘지방출상’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상당히 많은 개성상인이 지방 출상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확인 가능한 일제강점기에도 지방 출상인은 3천 명 내외에 이를 정도로 다수였다. 전하는 말에는, 많을 때는 1만 명이나 되었다고도 한다. 이처럼 지방출상은 개성상인의 상업 활동에서 본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힘들고 고된 객지에서 장사를 해서는 반드시 성공한 후에 고향 개성으로 돌아왔다. 객지에 갈 때는 가족을 두고 혼자 갔다. 가족은 개성에 남아서 생활하였다. 반드시 다시 개성에 돌아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생각된다.

지방출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하나는 개성 인근 지역 장시를 돌며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행상’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집을 나서 장사를 떠나면 며칠씩 인근 장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숙식은 주막 같은 데서 해결하였다. 행상의 장점은 개성 집에서 오가기 때문에 객지에 별도의 숙소 겸 가게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상업 유망 지역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으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상업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당시는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기 때문에 한번 객지로 나가면 자주 고향 개성에 돌아오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많으면 추석과 설에 두 번 적으면 설 명절 때 한번만 귀향하곤 하였다. 이들은 진출한 지역에 숙소 겸 가게(혹은 창고)를 마련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송방’ 이다. 개성상인은 전국 방방곡곡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남으로는 제주도까지 진출하였고, 북으로는 함경도까지 진출하였다. 말 그대로 전국 상권의 중심지는 물론 궁벽한 곳까지 개성상인은 진출하여 장사하였다. 그들은 성공하기 전에는 개성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개성으로 돌아온 듯하고, 대다수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인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차인(差人)제도:** 개성상인의 상업제도에서 차인제도는 채무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사환이 주인의 선택을 받으면 장사 밑천을 빌려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은행처럼 대출해주는 것에 가까운 방식이었다. 즉 가게 주인은 가능성 있는 사환이 독립하여 장사할 때 장사 밑천을 지원하였는데, 일제강점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그 대출은 당연히 무담보 신용 대출이었고, 당시 연이율은 15% 정도였다. 이런 채무관계를 맺게 되면 주인-차인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를 줄여서 ‘주차동사(主差同事)’라고도 불렀다. 차인은 그 밑천으로 객지에서 근검절약하며 장사하여 자기 자본을 모을 수 있었다. 신용 대출이지만 차인이 그 밑천을 허비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어릴 때부터 사환 생활을 하면서 상업에서 신용과 신뢰(信賴)의 중요성을 체득한 개성상인이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차인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주인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서 결국 성공하게끔 해준다고 한다.

한편 차인이 주인의 돈을 빌려가서 이득을 내면 그것을 주인과 나누어 가졌다. 주인이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이자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 중에서 이율을 뺀 이익을 다시 반으로 나눠서 주인이 가졌던 것이다. 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데, 장사 밑천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차인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익을 많이 내서 자신이 몫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검절약할 수밖에 없었다. 개성상인뿐 아니라 상업이 발전한 동네는 모두 깍쟁이, 수전노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남의 돈으로 장사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먹고 입는 것을 최대한 아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 2) 시변(時邊): 개성상인의 신용제도

시변은 그 기원이 정확하지 않다. 다만 늦어도 19세기에는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성상인 중 상위 자산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제도였다. 일제강점기에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개성상인이 시변을 이용할 수 있었다. 시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가 개성상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하였음을 의미하는 징표가 되기도 하였다.

시변은 개성상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제도이다. 그런데 매우 특징적인 점들이 있다.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는 대면(對面)하지 않고 중개인(1920년대 54명

정도)이 계약을 주도하였다. 피차 아는 사이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대면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애초의 계획을 초과하여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개인을 두고 대차 거래를 진행하였다.

대출인이 중개인에게 현금을 건넬 때 어떤 입증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무담보 신용 대출이었다. 이처럼 무담보 신용 대출임에도 변 이용자 중에서 문제를 야기한 사람 거의 없었다고 한다.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개성상인 내에서 도태되어 더 이상 개성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시변은 1년에 두 차례(음력 2월, 7월) 대차(貸借)를 총결산하였다.

이율은 중개인이 제정하였는데 1930년대에는 개성상공회의소에서 제정하였다. 월별 이율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자금 수요 많은 달은 당연히 이율이 그렇지 않은 달보다 높았다.

같은 달 중에도 5일 단위로 이율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26일 이후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 없었다.

시변은 근대적 금융기관이 없던 전근대에 상업 금융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상업은 농업과 달리 단기 긴급 대출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바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장사의 성패와도 관련된다. 이런 측면에서 개성상인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금융제도를 발전시켜 상업 거래를 활성화시켰던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담보 신용 대출이었던 시변은 은행 등 근대적 금융기구가 들어온 일제강점기에도 살아남아서 역할을 하였다. 생존 비결은 이율이 일제하 은행 이율보다 2% 정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지만, 무담보 신용대출이라는 장점과 매우 신속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 3) 인삼: 개성상인의 핵심 상품

개성상인은 조선시대 인삼 교역의 핵심 주도층이었다.

17세기 중반-18세기 전반은 조선-청-일본 간 삼각무역 최대 호황기였다. 당시 조선은 인삼(=산삼)을, 청은 비단과 백사 등을, 일본은 은(銀)이란 대표적인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성상인은 인삼을 매개로 삼각 무역 주도하면서 거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인삼을 일본에 수출하여 은을 받아오고, 이 은으로 중국의 비단, 백사

등을 구입해서 이를 국내는 물론 일본까지 수출하였다. 개성상인은 삼각무역의 핵심 주도층이었다. 당시 상황을 이중환은 택리지에 기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인삼, 일본의 銀이 절멸 상태에 빠진다. 그 결과 삼각무역 쇠퇴하였다. 19세기 들어 조선과 청이 국제 무역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데, 개성상인은 축적된 상업 자본을 인삼 재배에 투자하여 홍삼을 제조하여 수출하였기 때문이다.

홍삼을 제조, 수출하게 된 개성상인은 19세기에 다시 역관과 함께 대청(對淸) 무역 주도하면서 예전의 인삼 무역 호황 재현하였다.

개성상인의 인삼 투자가 갖는 의미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수요도 높은 자신들만의 핵심 상품(킬러 상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개성상인이 단순한 상인에서 생산자로 전환한 점 등일 것이다.

인삼은 현재까지도 개성상인의 경제력을 뒷받침해 오고 있다. 대한제국 정부와 일제 총독부는 홍삼 전매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이전까지 개성상인은 인삼의 재배, 홍삼으로 가공, 수출 등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으나 전매제 시행으로 개성상인의 역할은 인삼 재배로 국한되었다. 이런 난관에 봉착한 개성상인은 인삼 재배 면적을 급격히 증가시켜서 위기를 타개해 갔다. 또 홍삼 원료로 수납되지 않고 되돌려 받은 수삼(水蓼)을 건삼(=백삼)으로 제조하여 국내외로 판매하여 인삼 수익을 극대화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월남하여서는 강화도 일대를 인삼 주산지로 만들어 남한의 인삼 산업 주도하기도 하였다. 다수의 월남 개성인이 인삼업에 투자 및 종사하면서 남한 사회에 나름 성공적으로 정착해 간 사례는 적지 않다.

## 5. 근현대 개성상인

개항 이후 월등한 자본력, 정치권력의 지원 등에 힘입은 일제, 일본인의 경제 침탈로 전통적인 상업 도시의 상인은 주도권을 잃고 주변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성상인만은 예외로 일본 자본, 일본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서 일제강점기 내내 개성의 상권(商權)은 개성상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5대, 10대 대도시 중에서는 아마 개성이 유일하게 조선인이 상권을 유지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신문 기사는 일제의 경제 침입으로 한국인 상권이 어떻게 주변화되어 갔고, 그

런 와중에도 개성상인이 상권을 지켜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산으로부터 경성까지 경성에서부터 의주까지 기차(其次) 연변에 있는 도시를 보라. 그 어느 것이 조선 사람이 사는 곳인가? 정거장마다 일본인의 집이 있고 그 지방의 상권은 이 일본인의 집이 독점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유독 개성은 그렇지 아니 하고 상권이 조선인의 손에 있다. 무역회사 개성사를 위시하여 대소 상점이 모두 조선인의 것이다. 전등이 조선인의 손으로 가설된 것이다. 인삼이 수출된다. 송고직포(松高織布)가 미약하나마 외국 시장에 명성을 얻었다. 통창하여 개성은 조선인의 개성이다. 일본인 상점이 몇 개 있으나 조선인 고객이 없어서 별로 흥왕치 못하고 한편 구통이에서 기식(氣息)이 엄엄(奄奄)할 뿐이라 한다” (동아일보 1923. 11. 2).

아래 전통 도시 상공회의소의 한국인 회원 비율 표를 보아도 개성의 상권을 조선인이 장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 도시 상공회의소의 한국인 회원 비율〉

	경성	평양	신의주	부산	함흥	개성
1933	34.5	46.3	30.9	16.4		90.1
1934	34.0	49.1	42.8	18.6	50.5	90.2
1935	35.8	55.7	45.3	17.7	53.9	92.1
1936	42.9	56.1	55.0	17.6	56.2	92.5
1937	43.5	57.6	56.6	17.5	57.0	93.1
평균	38.1	52.9	46.1	17.6	54.4	91.6

한편 남한에서도 개성상인이 세운 기업은 다수 활동하고 있다. 조선시대 유력 상인집단으로는 서울상인, 개성상인, 의주상인, 평양상인, 동래상인 등을 꼽는다. 이



들 상인 집단의 후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의주상인의 후예를 자처하는 기업으로는, 3대 만상 기업이라고 하여 한독약품(김신권), 한국유리(최태섭), 신일학원(이영수)이 있다고 한다. 반면 개성상인이 세운 기업은 적지 않다. 다음은 개성상인 출신 기업인이 세운 회사 명단이다.

아모레퍼시픽, OCI · 유니온 · 유니드, 정보실업 · 정보화학 · 서울농약, 신도교역 · 신도리코, 한일시멘트, 녹십자, 신화사 · 한국빠이롯트, 대한유화공업(주), (주)서일, 서흥실업 · 서흥캡셀 · 유당마을, 한국화장품, 삼정펄프, 한원정밀화학, 한우리외식 산업(서라벌외식), 동양고속(주), 한국비락(주) 등

위 기업을 세운 월남 1세대 개성상인은 개성상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기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경영하였다. 다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예외적인 기업이 없지 않지만, 다수의 2세들은 개성상인으로서 정체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아쉽다.

## 6. 개성상인의 역사적 의미

일부 학자들은 한국 자본주의의 기원을 일제 식민지에서 찾는다. 카터 에커트는 한국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정경 유착, 정부의 주도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역사학자들은 조선후기 이래의 내적(內的) 발전 과정의 연장선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역사학계가 민족주의이라는 이념에 얽매어 실상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 본 개성상인의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이래 내적 발전 과정의 연장선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개성상인은 정경유착보다는 상업적, 경제적 능력에 의해, 정권 혹은 국가 교체와 상관없이 현재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자본가의 기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A decorative background featuring horizontal lines and geometric shapes. On the right side, there are diagonal lines in shades of purple and blue.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ere are several hexagonal shapes in shades of blue and purple. The overall design is modern and abstract.

## A decorative background featuring horizontal lines and geometric shapes. On the right side, there are diagonal stripes in shades of purple and blue.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ere are several hexagonal shapes in light blue and white. The overall design is modern and abstract.

## A decorative background featuring horizontal lines and geometric shapes. On the right side, there are diagonal lines in shades of purple and blue.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ere are several hexagonal shapes in shades of blue and purple. The overall design is modern and abstract.

## A decorative background featuring horizontal lines and geometric shapes. On the right side, there are diagonal lines in shades of purple and blue.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ere are several hexagonal shapes in shades of blue and green. The overall design is modern and abstract.

2020년 제22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 시장과 상인

발행일 2020. 5. 22.

발행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유동현

발행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032. 440. 6750

<http://museum.incheon.go.kr>

북디자인 일해